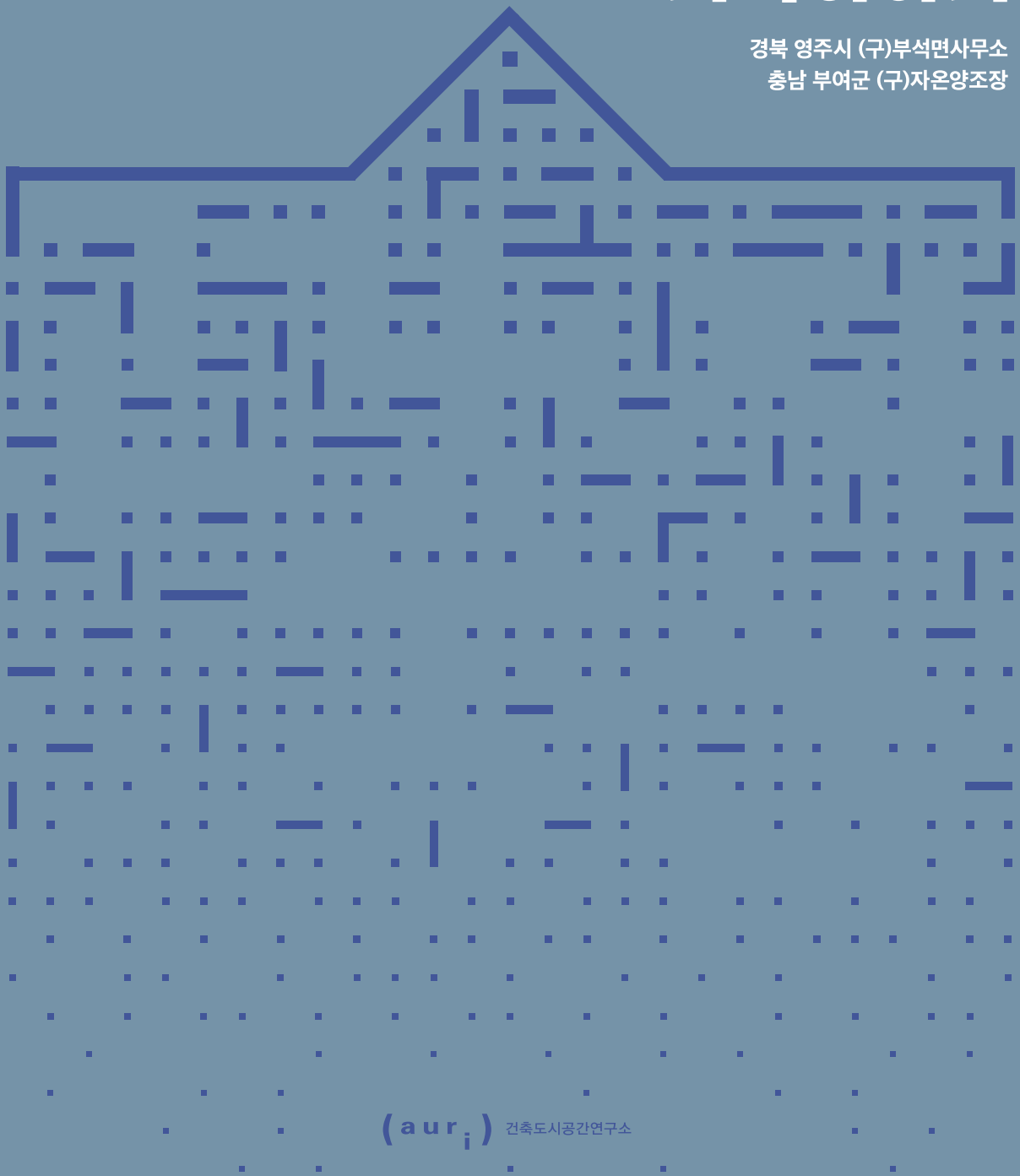
건축자산 기획이야기

경북 영주시 (구)부석면사무소
충남 부여군 (구)자온양조장



(aur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자산 기획이야기

경북 영주시 (구)부석면사무소
충남 부여군 (구)자온양조장

(aur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들어가기

2015년 6월, 국가 및 지역의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하기 위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정체성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하여 역사·경관·예술·사회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축자산을 발굴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건축자산 진흥 정책의 기반이 점차 구축되어 가는 현 시점에서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함에 있어 보다 현장 중심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문화자산센터에서는 '건축자산 기획이야기', '건축자산 시공이야기', '건축자산 활용이야기' 등 발간물을 시리즈로 기획하였다.

본 '건축자산 기획이야기'는 건축자산 보전 및 활용의 첫 단계인 '기획'단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기획의 사전적 정의는 "일을 꾀하여 도모하는 것", "어떤 대상에 대해 그 대상의 변화를 가져올 목적을 확인하고, 그 목적을 성취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행동을 설계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전적 정의를 고려하였을 때, 건축자산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기획은 먼저 건축자산의 가치를 발굴하여 그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활용 콘텐츠를 기획하고 건축적 특성을 고려

한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지속적인 운영관리 방안까지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획과정에서 지역 주민, 소유자, 전문가, 실무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과 협의는 필수적이지만 실제로 이를 추진하는 일은 쉬운 것만은 아니다.

이에 '건축자산 기획이야기'는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실제 건축자산을 대상으로, 이를 보전·활용하기 위한 가치 발굴부터 콘텐츠 기획 및 리모델링 계획을 진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다양한 이야기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기록이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하고자 하는 소유자 및 활용주체, 설계 및 시공분야 실무자,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등에게 하나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첫번째
이야기

경북 영주시 (구)부석면사무소
충남 부여군 (구)자온양조장

'건축자산 기획이야기'의 첫 번째 이야기는 공공과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자산을 대상으로 하여 소유주체에 따른 기획과정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자 하였다.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자산 중 첫 번째 이야기로 다룰 건축자산은 경상북도 영주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구)부석면사무소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건축문화자산센터)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2019 건축자산 가치발굴 및 확산을 위한 지자체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되었다. 약 50여 년간 면사무소로 사용되었던 (구)부석면사무소는 역사적, 사회문화적, 공동체적 가치가 높은 건축자산이며, 그 역사성과 상징성을 고려한 콘텐츠 개발과 리모델링을 통해 그 가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건축문화자산센터에서는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자산을 선정하기 위해 건축자산 기초조사,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사업, 비지정 건조물문화재 일제조사 사업 등의 조사결과를 검토하였으며, 건축자산과 관련된 프로젝트 추진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목록을 구축하였다. 구축된 목록에서 소유자의 보전 및 활용 의지, 실현 가능성, 보전 및 활용에 따른 지역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충청남도 부여군에 소재한 (구)자온양조장을 선정하였다. (구)자온양조장은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의 역사가 담긴 건축물이 밀집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세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온길 프로젝트'의 주요 거점

공간으로서 새로이 마련될 콘텐츠 기획안 및 리모델링 계획안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지역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판단되었다.

위와 같은 방법과 절차를 통해 선정된 경북 영주시 (구)부석면사무소와 충남 부여군 (구)자온양조장을 대상으로, 건축문화자산센터에서는 현장조사, 전문가 및 지역주민 워크숍 등을 통해 활용 콘텐츠를 기획하고 리모델링 계획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소유자, 지역주민, 전문가, 공무원 등 다양한 주체와 협력하고 협의하였으며, 이 책은 그러한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이야기들을 묶은 하나의 '기록'으로서 발간되었다. 부석면 주민, 영주시청 관계자, ㈜세간, ㈜마을제작소엔건축사사무소, 로그램스튜디오 등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으며, 짧은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 기록이 개별 건축자산의 첫 아카이브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향후 건축자산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더욱 많은 건축자산이 보전 및 활용될 수 있도록 기획단계에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경북 영주시 (구)부석면사무소

1 부석(浮石)과 면소마을 010

2 부석면사무소의 가치를 인식하다 012

3 부석면사무소의 가치 기반 활용을 모색하다 020

4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공공적 가치를 잇다 041

5 지역에게 공간을 돌려주다 057

II 충남 부여군 (구)자온양조장

1 자온양조장과 규암 060

2 (구)자온양조장의 가치를 인식하다 062

3 (구)자온양조장, 규암마을과 함께 하다 075

4 (구)자온양조장의 활용을 위해 공공이 지원하다 080

5 (구)자온양조장, 다시 문을 열기 위해 머리를 맞대다 082

6 지역문화공간으로 변화하다 102

경북 영주시 (구)부석면사무소

(구)부석면사무소는 1940년추정 건축된 이후 약 80여 년의 시간이 응축된 공간으로, 신청사로 이전한 1989년까지 약 50여 년 동안 지역의 거점시설인 면사무소로 기능했던 곳이다. 또한 경상북도에 몇 안 되는 일제강점기에 건립된 면사무소로 의미가 있다. 이러한 (구)부석면사무소의 역사적·사회문화적·공동체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토교통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문화자산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9 건축자산 가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지자체 공모사업'에서 건축자산 활용 분야의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문화자산센터는 영주시 관계자, 건축자산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과 함께 (구)부석면사무소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고려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기본설계안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실질적 활용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전 과정을 기록·분석하여 건축자산 보전·활용의 선도모델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1 부석(浮石)과 면소마을 010
2 부석면사무소의 가치를 인식하다 012
3 부석면사무소의 가치 기반 활용을 모색하다 020
4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공공적 가치를 잇다 041
5 지역에게 공간을 돌려주다 057

1 부석浮石과 면소마을[1]

'부석'浮石은 글자 그대로 '뜬 돌'이라는 뜻이다. 오늘날의 부석면은 의상대사가 부석사[2]를 창건한 676년 그 이전부터 이벌지현伊伐支縣이라는 이름의 독립된 행정구역으로 존재했다.

1914년에는 조선총독부가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순흥군·풍기군·영천군이 영주군으로 합쳐지고, 순흥군의 봉양면·용암면·도강면이 '부석면'으로 통폐합되었다. 부석면은 1919년에 시장인 '소천장'이 들어섰고, 1922년에는 부석공립보통학교가 개교하고 경찰주재소와 금융조합이 들어서며 면소재지로서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1940년추정에는 부석면사무소가 건축되면서, 부석면사무소가 위치한 소천3리는 '면소마을'로 불리게 되었다[3].

1 영주시민신문(2018), "부석면의 중심지 소천3리 '면소마을'", 2018.1.5. 을 참고하여 재작성.

2 설화에 따르면, 의상대사가 절을 창건할 당시 도적들이 이를 방해하였는데 용이 나타나 커다란 바위를 들었다 놨다 하며 도적들을 내쫓았다고 한다. 결국 의상대사는 절을 완성할 수 있었고, 절 이름을 부석사(浮石寺)라 지었다.

3 면사무소 소재지는 부석초등학교가 있는 소천2리와 부석면사무소 주변의 소천3리, 낙하암천 남쪽에 있는 소천4리 등 3개 리로 구성되어 있다.

부석면사무소 주변 항공사진

현재의 부석면행정복지센터와 (구)부석면사무소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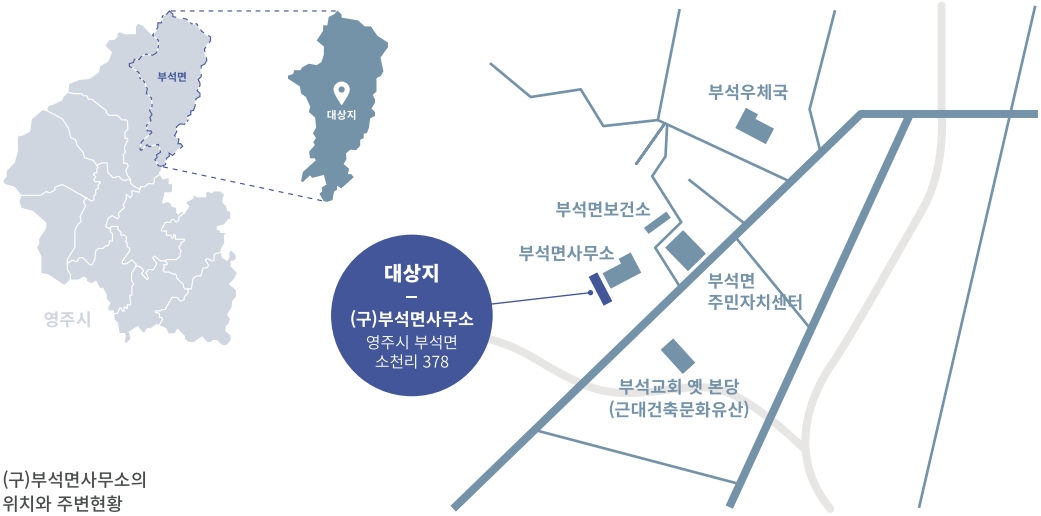
2 (구)부석면사무소의 가치를 인식하다

(구)부석면사무소를 발굴하다

(구)부석면사무소가 가치 있는 건축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16년 동양대학교의 배준현 교수가 수행한 '영주시 근대(건축)문화유산 현황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에서부터였다. 배준현 교수는 영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총 141개의 근대(건축)문화유산을 발굴하였다. 이들 중 등록문화재 우선신청 대상으로 5개의 후보군이 선별되었고 영주시 근대문화유산가칭 우선지정 후보군 21개,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우선신청 후보군 4개를 선별하였다. (구)부석면사무소는 등록문화재 우선신청 대상 후보군 중 유일한 공공건축물로 포함되어 있었으며, 영주시 근대문화유산가칭 우선지정 후보군에도 포함되었다.

(구)부석면사무소의 모습

(구)부석면사무소는 영주시 부석면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다. 보건소, 주민자치센터, 우체국, 부석초등학교, 부석중학교 등 부석면 전체의 행정기관 3곳과 교육기관 2곳 모두 인근에 위치해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부석사와 약 5㎞ 정도 떨어져 있으며, 근대(건축)문화유산으로 발굴한 부석교회 옛 본당이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다.



(구)부석면사무소의
위치와 주변현황

부석교회 옛 본당의
외부 및 내부 모습

(구)부석면사무소는 건축물대장에 1945년 건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부석면 주민인 박주환 어르신의 고증에 따르면 9살이었을 때 면사무소 건축물이 있었음을 기억한다는 점에서 일제강점기인 1940년 무렵에 건축되어 대장에는 광복해인 1945년으로 기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석면사무소를 신청사로 이전한 1989년까지 면사무소로 사용되었으며, 현재는 재난창고로 사용되고 있다.

(구)부석면사무소는 장방형 평면의 좌우대칭 구조이며, 지붕은 시멘트기와의 용마루 양단부를 삼각형으로 모죽임한 맞배지붕 형태[4]이고 정면 출입구만 박공으로 되어 있다. 건축물은 건립된 이후 증·개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는데, 1980년 12월 바닥마감재 보강, 2007년 5월 목조기둥을 경량철골로 보강한 사항만 기록으로 확인되었다.

(구)부석면사무소의 건축개요

건축연도	1940년(추정)	**주구조**	한식목조
대지면적	2,857	**주 마감재**	회벽
건축면적	109.09	**지붕**	일식 시멘트기와
연면적	109.09	**대장상 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층수	1층	**실제용도**	부석면사무소 창고

(구)부석면사무소 외부 및 내부의 모습

4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경상북도(2004),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및 조사보고서, p.980, 풍각면사무소 연혁 참고

[별지제3호서식]

2000. 8. 18

일반건축물대장(갑)

고유번호	1112103902 4-1-0318 0000							장번호	1-
대지위치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소천리			지번	318 외 2필	명칭 및 번호	부석면 사무소	특이사항	
※ 대지면적	2314.5㎡	연면적	751.8 ~~1136.52~~㎡	※ 지역	일반주거외	※ 지구		※ 구역	
건축면적	401.24㎡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721.04 ~~1108.16~~㎡	주구조	철근콘크리트외	주용도	근린생활시설·창고	층수	지하: 1 층/지상: 3 층
※ 건폐율	18.46%	※ 용적률	31.15 ~~47.86~~%	높이	m	지붕	스라브외	부속건축물	~~6~~ 동 ~~49.5~~ ~~1526.94~~㎡

건축물현황					소유자현황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성명(명칭) / 등록번호	주소	소유권지분	변동일자 / 변동원인
주	지1	철근콘크리트조	사무실	30.36	영주시			1996.7.11
	1	철근콘크리트조	사무실	268.65	37116			소유권 보존
주	2	철근콘크리트조	사무실	246.36				
	3	경량철골조 판넬	서고	34.56				
~~부속~~	1	목조 기와	~~화장실~~ 창고	109.09				
부속	1	경량철골조 판넬	사무실	49.50				
주	2	경량철골조 판넬	창고	12.88				

※ 항목은 총괄표제부가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97㎜×210㎜ 백상지260g/㎡

고유번호									장번호	2-
구분	성명 또는 명칭	면허(등록)번호	※ 주차장			승강기	승용	대	허가일자	
건축주			옥	자주식	대	㎡		비상용	대	착공일자
설계자			내	기계식	대	㎡	※ 오수정화시설	형식		사용승인일자 1945년
공사감리자			옥	자주식	대	㎡				관련지번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			외	기계식	대	㎡		용량	인용	377-3, 377-12

변동사항

변동일자	변동내용 및 원인	변동일자	변동내용 및 원인
1999.11.10	지1,2층 사무실 545.31㎡ 증축		
1993.10.4	3층 서고 34.56㎡ 증축		
1999.7.30	1999.7.24 1층사무실 49.50㎡ 증축		
1999.7.30	지번변경(318→318, 377-3, 377-12)		
1999.7.30	이기되어 신규작성		
2003.11.14	2003.11.4 증축(2층 증축 12.88㎡)		

기타기재사항

· 자연녹지지역 · 경량철골조 · 판넬

※ 항목은 총괄표제부가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구)부석면사무소 건축물대장(수기자료)

출처: 영주시청 제공

건축자산 활용 공모사업에 신청하다

2019년 5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문화자산센터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곳곳에 있는 건축자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9 건축자산 가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지자체 공모사업'을 추진하였다. 공모사업은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정보 활용 분야와 건축자산 활용 분야로 구분하여 추진되었다. 건축자산 활용 분야에서는 건축자산 보전·활용의 선도모델을 개발하고자 공공 소유 건축자산의 활용 콘텐츠 기획과 리모델링 계획(안)을 수립하고 그 전 과정을 기록·분석하고자 하였다.

영주시청 건축과의 안창주 팀장은 영주시 도시건축관리단장인 신승수 단장과 함께 논의하여 공모사업 중 건축자산 활용 분야에 (구)부석면사무소를 신청하였다. 영주시는 (구)부석면사무소가 건립된 지 약 80여 년이 된 건축물이며, 경상북도에 현존하는 몇 안 되는 일제강점기 면사무소로서 역사성과 상징성을 고려한 콘텐츠 개발과 리모델링을 통해 그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공모사업 신청 시 활용계획서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부석사와 연계하여 'Accessible Public Space'를 조성함으로써 인포메이션센터 역할을 수행하되, 외부 방문객이 없을 때에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회의실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건축자산 활용 분야 - [서식1]

2019 건축자산 가치발굴 및 확산을 위한 지자체 공모사업 신청서

- 건축자산 활용 분야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소유구분	[√] 지자체 공용 [ ] 민간 소유
신 청 인	성명 안 창 주	기관명	영 주 시
	주소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번지 (전화번호:054-639-6761)		
건축자산 개요	명칭 부석면사무소		
	주소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소천리 378		
	주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용도	부석면사무소 창고
	구조형식 목조 일식 시멘트기와		
	규모 대지면적(㎡) 2,857	건축면적(㎡)	109.09
	규모 연면적(㎡) 109.09	층수(지상/지하)	지상 1층
	규모 기타 규모를 표시할 수 있는 수치 - 면사무소 본건물 : 68.04㎡(12.6m×5.4m) - 숙직실 및 창고 : 41.05㎡		
신청사유	본 건물은 일제 강점기인 1940년 무렵에 건축되어 1989년까지 면사무소로서의 기능을 이어왔으나 현재 유휴 건축물로서 창고로 활용되고 있으며, 경상북도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역사성이 뛰어나고 보존 상태 역시 양호하여 콘텐츠 개발 및 리모델링을 통해 건축자산으로서의 활용 가치가 클 것으로 추정됨		
그 밖의 사 항	2018년 부석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올해 소수서원도 잠정목록 등재되어 외국인들의 관심과 방문이 늘어나고 있으나 방문객을 부석면 소재지로 유도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매우 부족함 역사성이 뛰어난 구면사무소 본건물의 기능을 되살려**(사용에 의한 보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Accessible Public Space**로 활용하여 면사무소 기능을 복원		

위와 같이 「2019 건축자산 가치발굴 및 확산을 위한 지자체 공모사업」의 건축자산 활용 분야로 신청합니다.

2019 년 5 월 31 일

관할 지방자치단체 : 소속 영 주 시 (직) 시 장 성명 장 욱 현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제출서류	1. 건축자산(건축물) 기초조사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2. 건축자산 활용계획서 3. 민간 소유인 경우 건축자산 소유자 동의서 4. 해당 건축자산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문헌자료 및 시각자료 가.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예술적 가치, 역사적 가치, 경관적 가치 또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여부 나. 가목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방치될 경우 그 가치가 멸실 또는 훼손될 위험이 있는지 여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1 -

영주시의 지자체 공모사업 신청서(건축자산 활용 분야)

지자체 공모사업 기획 (auri+국토교통부)	2019년 3 ~ 4월	• 공모계획 수립 • 관련 전문가 풀 구축
공모사업 공고 (국토교통부)	2019년 4월 25일 ~ 5월 31일	• 국토교통부 → 시·도 → 시·군·구
선정위원회 심사 (국토교통부+선정위원회+auri)	2019년 6월 11일	• 선정위원회 구성(내부2인+외부3인) • 지자체별 제출서류 심사
사업대상지 선정 (1개소) (국토교통부+선정위원회+auri)	2019년 6월 12일	• 사업목적과의 적합성, 건축자산의 가치, 건축자산 활용에 대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1개소 선정
위탁업체 선정 및 위탁용역 착수 (auri+위탁용역업체)	2019년 7월 ~ 9월	• 위탁업체와 용역내용 사전협의 • 위탁용역 착수
워킹그룹 구성		• 사전협의를 거쳐 기획자, 설계자, 기존 운영자 또는 창업자, 지역주민 등 워킹그룹 구성
지역관계자 인식 및 의견조사 (auri)	2019년 9월 ~ 11월	• 대상 건축자산에 대한 가치조사 및 대상지 현황분석 • 지역주민이 지역에 필요로 하는 용도와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 워킹그룹 워크숍 운영 • 건축자산 활용 콘텐츠 기획 및 기본설계안 마련
건축자산 활용 콘텐츠 기획 (auri+워킹그룹+위탁용역업체)		
건축자산 활용 기본설계안 마련 (auri+워킹그룹+위탁용역업체)		
기본설계안 제안 및 단행본 작업 (auri)	2019년 11월 ~ 12월	• 기본설계안 및 관리·운영방안 제안 • 단행본 원고작성

공모사업 추진 프로세스

건축자산 활용 공모사업에 선정되다

2019년 6월,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문화자산센터 2인, 외부전문가 3인, 총 5인으로 구성된 공모사업 선정위원회는 '경북 영주시 (구)부석면사무소'를 건축자산 활용 분야의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선정위원회는 약 50여 년간 면사무소로서 기능했던 (구)부석면사무소가 역사적, 사회문화적, 공동체적 가치가 있는 건축자산이며, 역사성과 상징성을 고려한 콘텐츠 개발과 리모델링을 통해 그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영주시의 (구)부석면사무소가 '2019 건축자산 가치발굴 및 확산을 위한 지자체 공모사업'의 건축자산 활용 분야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건축문화자산센터는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영주시와 업무협의를 가졌다. 영주시청 건축과의 안창주 팀장은 (구)부석면사무소는 '경상북도에서 가장 오래된 면사무소 건물'이며, 인근에 위치한 부석교회 옛 본당 건물 1955년 건축을 연계하여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영주시는 부석교회 옛 본당 건축물은 원형 그대로 등록문화재로 추진할 계획이며, (구)부석면사무소는 현재의 모습에 새로운 기능을 더하여 우수건축자산 또는 등록문화재로 등록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건축문화자산센터는 (구)부석면사무소가 지니고 있는 가치와 보전·활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문화재위원을 포함한 전문가 현장조사 및 자문회의를 추진하였다.

3

부석면사무소의 가치 기반 활용을 모색하다

전문가들과 함께 (구)부석면사무소의 가치에 대해 논의하다

건축문화자산센터는 (구)부석면사무소의 등록문화재 등록 가능성과 가치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문화재청 근대문화재분과위원장인 충청대학교 신안준 교수, (구)부석면사무소를 발굴했던 동양대학교 배준현 교수 그리고 마을제작소엔건축사사무소의 박중신 대표와 함께 (구)부석면사무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구)부석면사무소의 전경

전문가들은 (구)부석면사무소의 역사적, 사회문화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많은 부분이 변형되었기 때문에 고증자료 수집과 실측, 사진촬영 등 기록화 작업을 통한 면밀한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건축물의 실측을 위해 천장텍스의 철거가 필수적이며, 활용을 위해서는 트러스 목재 및 접합부재의 부식 여부를 점검하여 안전진단 실시 여부와 보수·보강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건축물의 기능 설정, 운영주체, 주민참여 여부, 관리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활용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며, 주요 사용자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하여 '지역밀착형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구)부석면사무소 천정텍스 일부 철거 후 확인한 점검구의 모습

(구)부석면사무소 관련 전문가 현장조사

공공-전문가그룹-지역주민이 함께 고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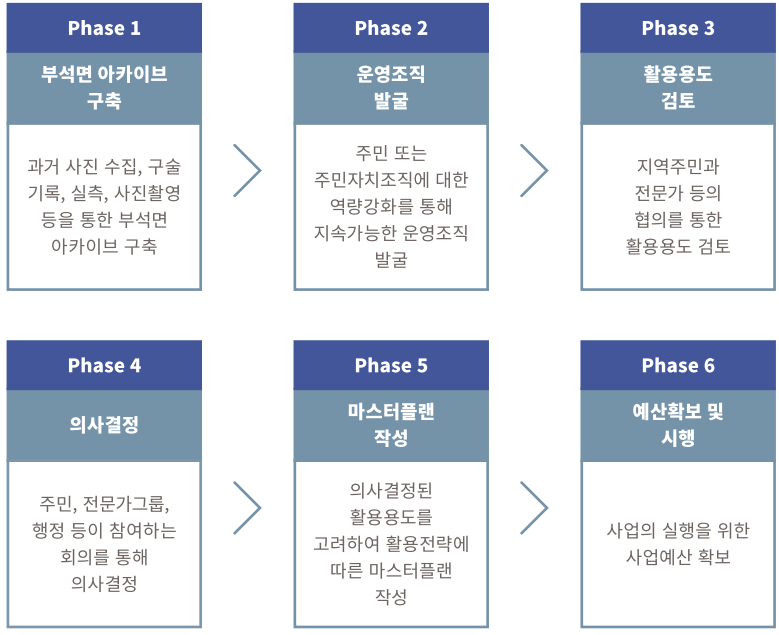
전문가 현장조사 이후 건축문화자산센터는 (구)부석면사무소의 활용방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청취하고자 워킹그룹을 운영하였다. 워킹그룹은 영주시 공무원과 지역 및 건축자산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으로 구성하였으며, 3차례의 워크숍을 추진하였다. 영주시 도시건축관리단장인 신승수 단장과 제1대 영주시 총괄건축가였던 영남대학교의 도현학 교수, 영주시 근대건축문화유산 현황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했던 동양대학교 배준현 교수, 건축자산 관련 프로젝트에 다수 참여해온 마을제작소엔건축사사무소의 박중신 대표로 워킹그룹의 전문가를 구성하였다.

8월에 열린 첫 번째 워킹그룹 워크숍에서는 신승수 단장과 영남대학교 도현학 교수, 동양대학교 배준현 교수, 마을제작소엔건축사사무소의 박중신 대표를 비롯하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문화자산센터, 영주시청 건축과의 안창주 팀장, 부석면 지역주민이 함께 참석하여 (구)부석면사무소의 가치와 활용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구)부석면사무소 제1차 워킹그룹 워크숍

부석면 지역주민들은 부석면에 카페가 있으나 운영시간이 짧아 늦은 시간에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공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시니어카페'를 제안하였다. 더불어 현재 부석면에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공용공간으로 조성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전문가들은 (구)부석면사무소 외에도 인근에 부석교회 옛 본당, 순정다방 등 근대건축물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다. 마을제작소엔건축사사무소의 박중신 대표는 (구)부석면사무소의 보전·활용을 위한 주요 추진절차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며 다음의 추진과정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영주시, 전문가, 지역주민들의 논의를 정리하여 (구)부석면사무소의 활용방향으로 지역의 거점시설로서 마을의 자산을 발굴·기록하는 아카이빙 공간이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카페, 공용공간 등으로 계획하여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구)부석면사무소 보전·활용을 위한 주요 추진절차

(구)부석면사무소를 기록하다

워킹그룹 워크숍 이후 전문가 가치조사와 워킹그룹에 참여해 온 마을제작소엔건축사사무소 박중신 대표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문화자산센터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구)부석면사무소의 기초자료 조사와 실측, 리모델링 계획 및 기본설계(안)을 작성하였다.

우선, (구)부석면사무소에 대한 도면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보전·활용계획을 수립하는 데 앞서 현재의 모습을 기록하기 위한 실측작업이 진행되었다. 실측작업을 위해서는 (구)부석면사무소의 목조트러스를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기존의 천장텍스 철거가 선행되었다. 전문가 현장조사 시 일부 천장텍스를 철거하여 점검구를 통해 대략의 목조트러스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면밀한 조사를 위해 전체 천장텍스를 철거하여 목조트러스의 상태 점검이 필요했다. 마침 부석면행정복지센터의 천장텍스 공사가 예정되어 있어, 부석면행정복지센터의 창고 겸 숙직실로 기능하고 있는 (구)부석면사무소의 천장텍스도 함께 철거할 수 있었다.

부석면행정복지센터 진입마당에서 바라본 (구)부석면사무소

(구)부석면사무소의 배면

인접대지에서 바라본 (구)부석면사무소의 배면

부석면행정복지센터 옥상에서 바라본 (구)부석면사무소

(구)부석면사무소의 정면

(구)부석면사무소 측면에서 바라본 모습

(구)부석면사무소의 지붕 목조트러스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구)부석면사무소 내부 모습

(구)부석면사무소는 크게 (구)사무동과 증축된 (구)관사동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현재 창고와 숙직실로 사용되고 있다. 1940년대 축조된 기둥, 트러스 등의 구조부는 대부분 훼손이 되지 않은 상태이며, 일부 내벽과 외벽이 훼손되어 있으나 외형은 건립된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건축물의 정면과 배면이 대칭을 이루고 지붕은 시멘트기와일식기와로 시공한 맞배지붕 형태이며, 출입구 상부에만 박공 형태를 취하고 있다. 건축물의 바닥마감재 보강콘크리트 테라조 및 구조보강을 위해 (구)사무동 내부에 철골구조H빔로 기둥과 보를 설치하였으며, (구)관사동의 내부는 마감재의 훼손을 제외하고 대부분 건립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영주시에서 (구)부석면사무소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보수, 보강 등을 진행하여 신축 후 약 80년이 된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원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영주시에서는 (구)부석면사무소의 과거 사진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지역 내 주민자치조직과 SNS 등 다방면으로 홍보하였으나, 아직까지 수집된 자료는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구)부석면사무소의 과거 사진자료를 찾기 위한 노력은 지속할 예정이다. 건축자산의 보전·활용을 위해서는 과거 사진자료 수집과 더불어 현재의 (구)부석면사무소를 기록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이에 총 4차에 걸쳐 현장조사를 시행하여 (구)부석면사무소의 현재 모습을 사진과 도면으로 기록하였다.

(구)부석면사무소의 통풍구

(구)부석면사무소의 외벽에 드러난 메쉬

(구)부석면사무소의 배수로로 추정

(구)부석면사무소 (구)사무동과 (구)관사동의 연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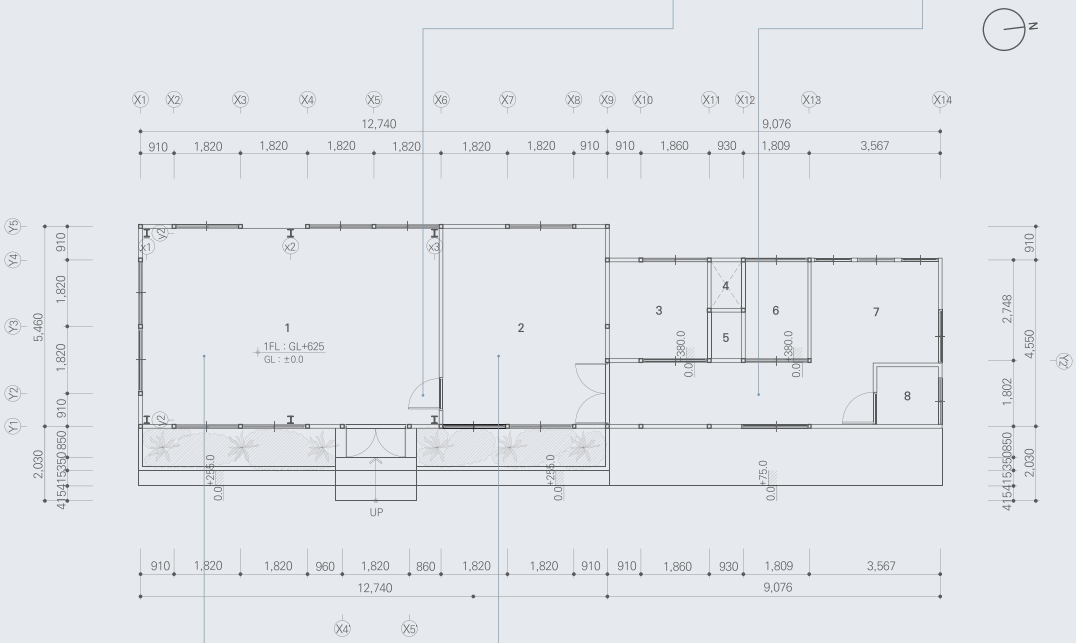
(구)관사동의 후면

(구)관사동의 내부모습(현재 숙직실로 사용)

1층 평면도

창고1과 창고2를 연결하는 문

복도와 숙직실 입구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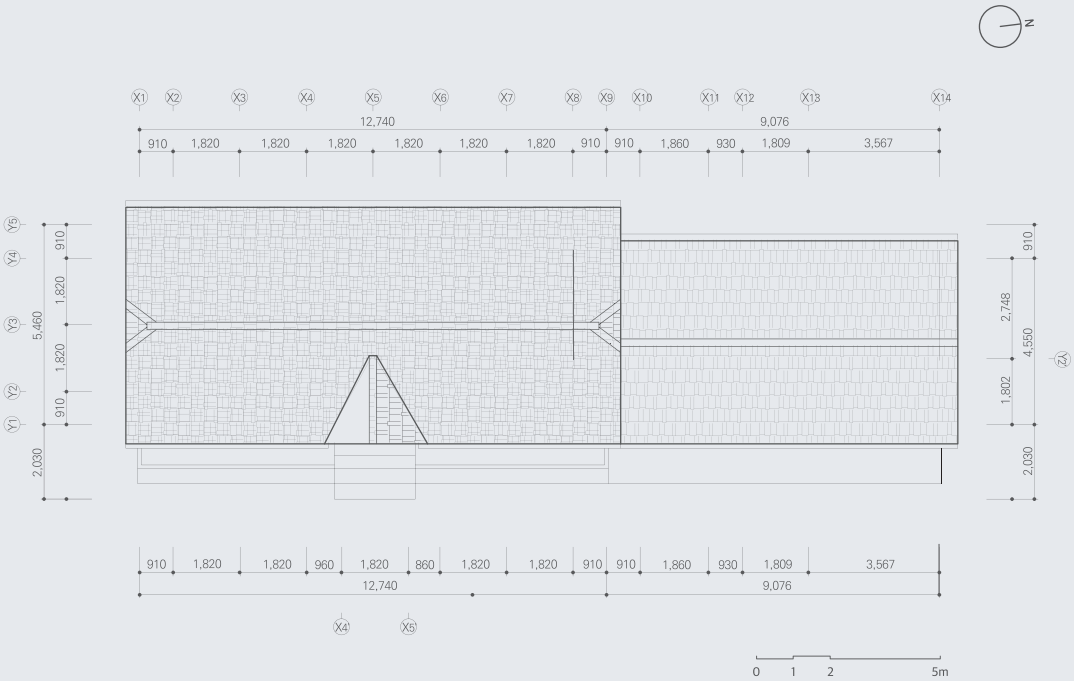


1 창고1
2 창고2
3 방1
4 반침(하부 보일러실)
5 반침
6 방2
7 창고3
8 창고4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구)부석면사무소의 내부모습

지붕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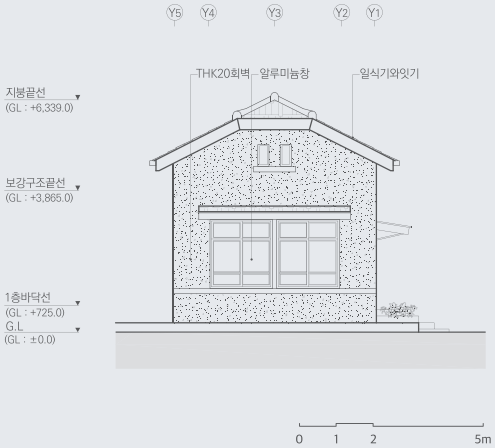
(구)부석면사무소의 지붕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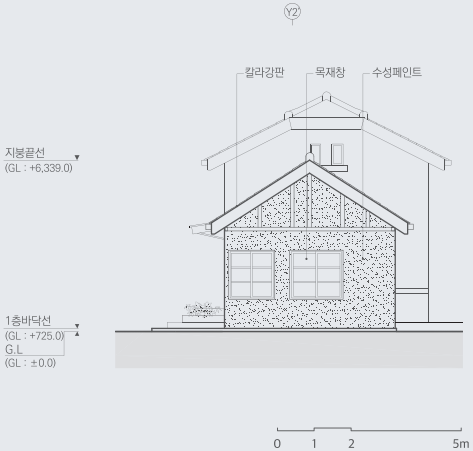
(구)부석면사무소 (구)사무동과 (구)관사동의 지붕

좌측면도

©윤준환


Y5
Y4
Y3
Y2
Y1
THK20회벽
알루미늄창
일식기와잇기
지붕끝선
(GL : +6,339.0)
보강구조끝선
(GL : +3,865.0)
1층바닥선
(GL : +725.0)
G.L
(GL : ±0.0)
0
1
2
5m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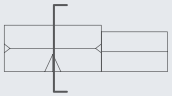

Y2
칼라강판
목재창
수성페인트
지붕끝선
(GL : +6,339.0)
1층바닥선
(GL : +725.0)
G.L
(GL : ±0.0)
0
1
2
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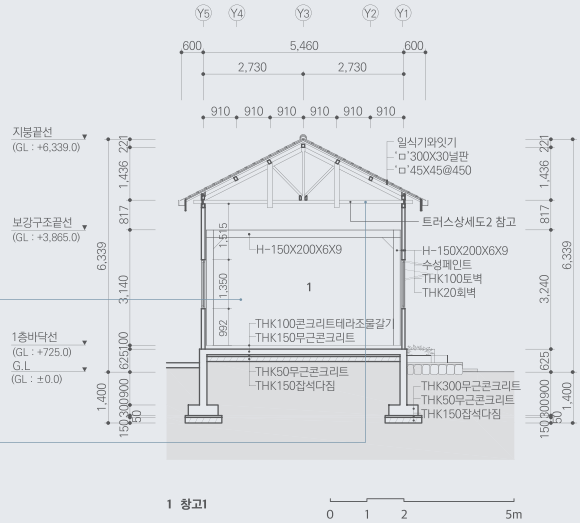
정면도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3
X14
일식기와잇기
알루미늄창
THK20회벽
칼라강판
알루미늄문
수성페인트
지붕끝선
(GL : +6,339.0)
보강구조끝선
(GL : +3,865.0)
f 100PVC선홈통
1층바닥선
(GL : +725.0)
G.L
(GL : ±0.0)
0
1
2
5m

©윤준환

종단면도
(구)사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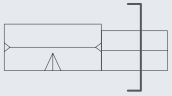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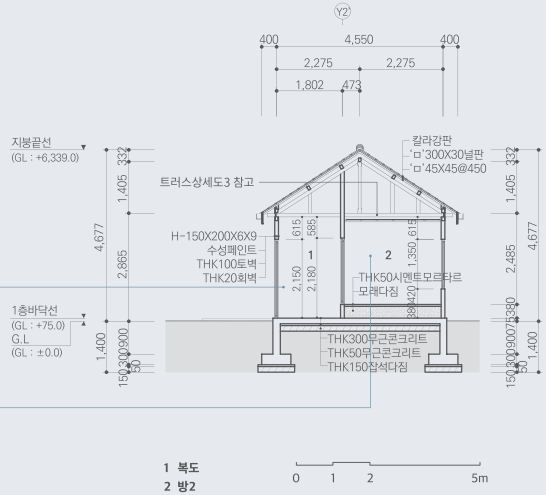
위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구)사무동의 내부모습
아래 (구)사무동의 목조트러스

1 창고1

0 1 2 5m

종단면도
(구)관사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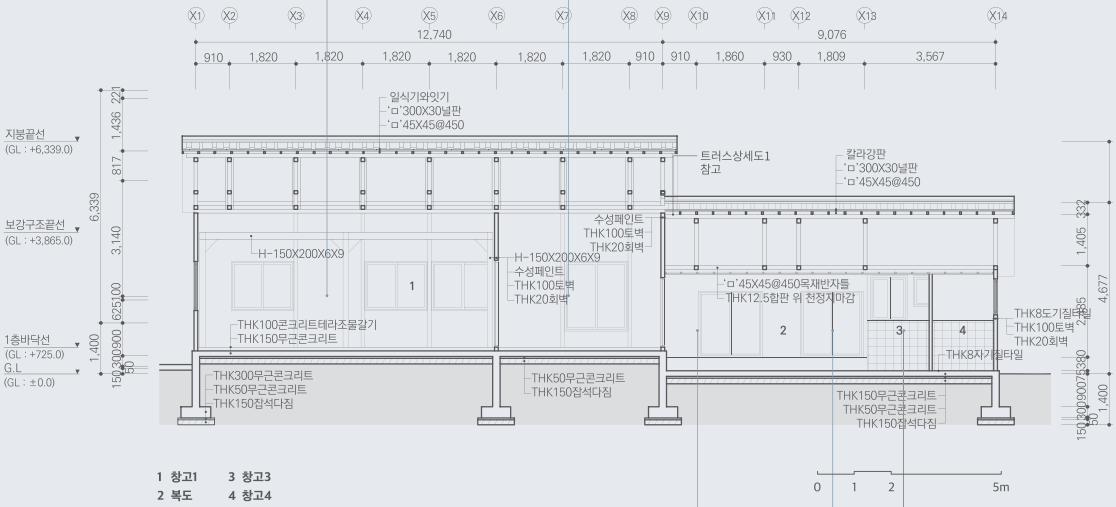
위 (구)관사동의 복도
아래 (구)관사동의 숙직실 내부모습

1 복도
2 방2

0 1 2 5m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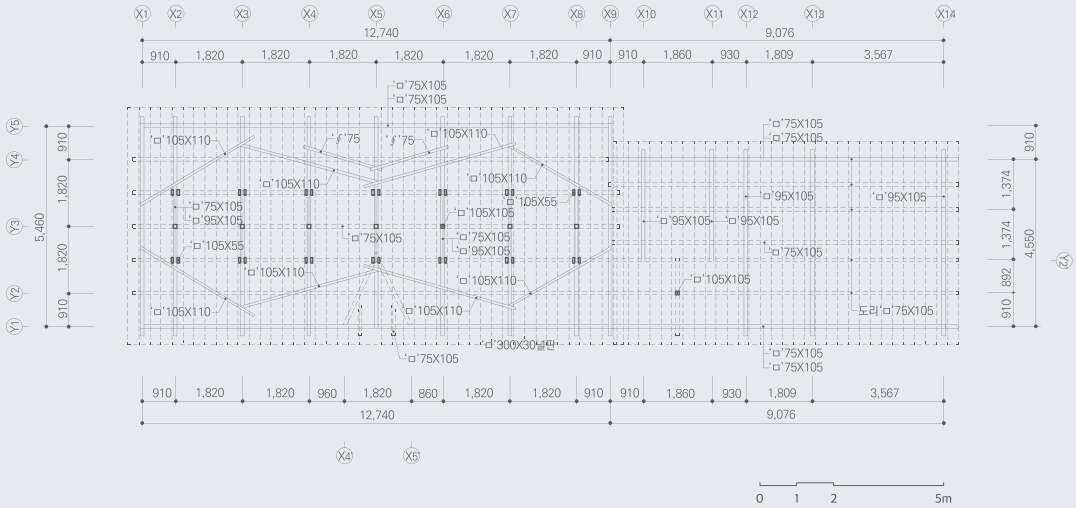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구)사무동의 내부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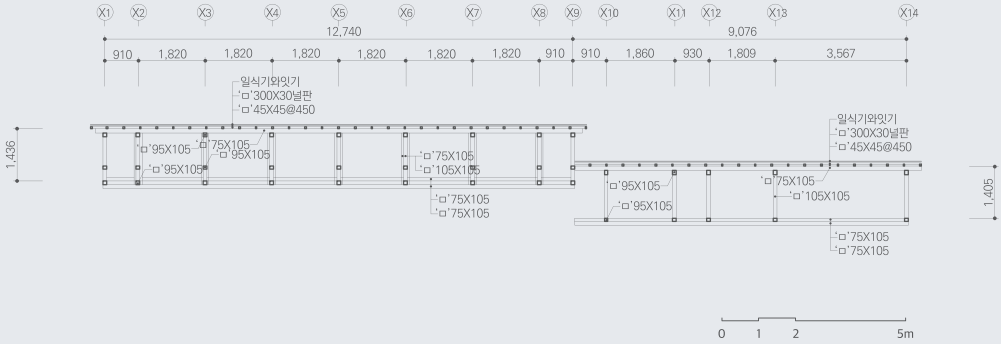
(구)관사동 복도의 모습

(구)관사동 창고의 내부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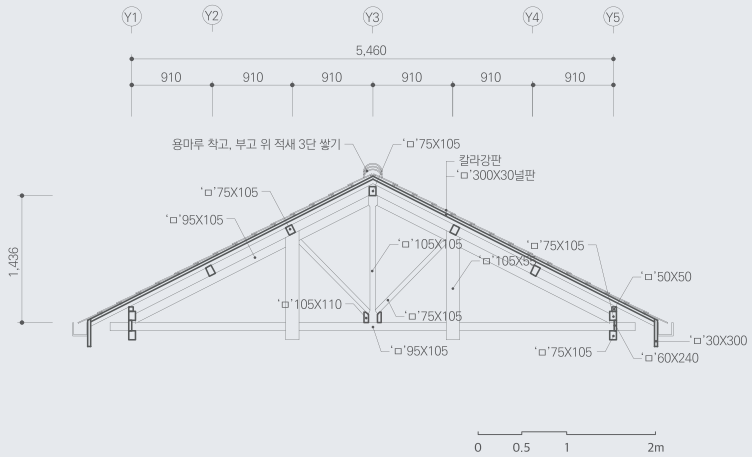
1층 앙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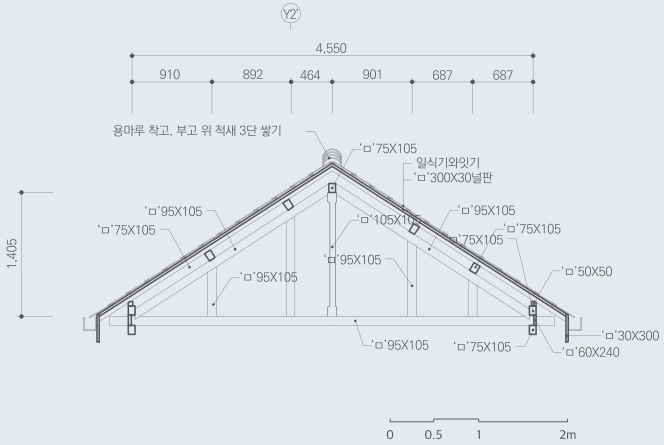
트러스상세도 1



트러스상세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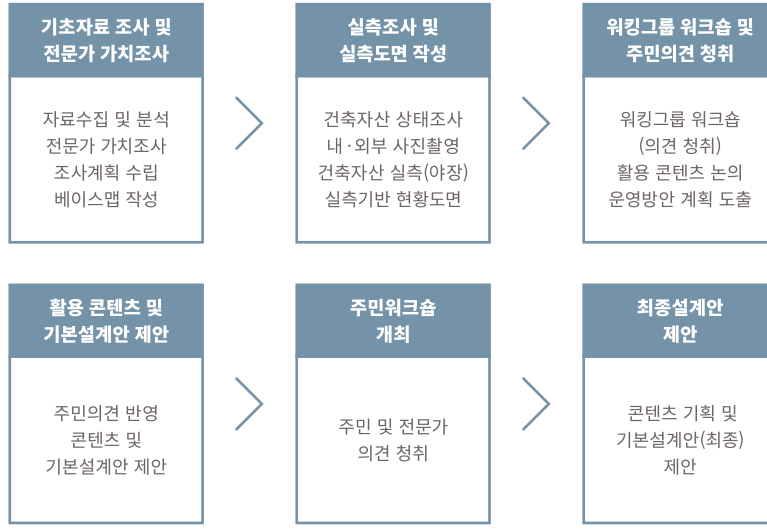


트러스상세도 3



(구)부석면사무소의 보전과 활용을 고려하다

건축자산의 보전·활용은 박제된 공간이 아니라 안과 밖에서 사용자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되, 과거부터 현재까지 응축되어 온 역사적·장소적 가치는 보전하면서 현대적·미래적 가치에 기반한 수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구)부석면사무소의 가치와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기 위해, 지역 및 건축자산 관련 전문가, 지자체 담당 공무원,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을 직접 공간기획에 참여시켜 건축자산의 가치를 공감하고 다양한 주체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구)부석면사무소의 활용을 위한 콘텐츠 기획 및 기본설계안 제안절차

4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공공적 가치를 잇다

주민과 함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다

부석면에는 새마을부녀회, 농가주부농협, 적십자 봉사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바르게살기운동본부, 노인회 등 다양한 주민협의체가 있다. (구)부석면사무소의 보전·활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활용 콘텐츠 기획과정에서 특정 주민협의체의 의견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에 속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부석면장은 예전 (구)부석면사무소를 재현하여 전시장으로 활용하되 주말에는 카페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일부 주민들은 주민자치조직을 위한 공간 혹은 주민들을 위한 마을공동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특히 지역주민조직 중 '새마을부녀회'의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은 (구)부석면사무소의 운영주체로서 참여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새마을부녀회장은 "부석면행정복지센터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의 방문도 잦은 편이고 부석면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의 이용도 고려하면 '카페'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카페로만 활용하는 것보다 마을행사 시 지역주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마을부엌'과 '마을카페'를 함께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밖에도 지역의 필요시설에 대한 보다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지역 주민협의체 이외의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부석면에서 지역 주민들이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시설은 문화시설이었으며, 주민들의 휴식공간 또한 부족한 것으로 언급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부석면 인근에 있는 편의시설 및 이용현황을 살펴보았고, 그 결과 주민들이 손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을 파악하였다.

부석면에 대한 편의시설 현황파악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부석면사무소의 활용용도를 전시공간, 카페 등 커뮤니티 활성화 공간과 마을부엌, 공용창고 등 주민공용공간으로 설정하였다.

부석면 주변 편의시설 및 이용현황

시설		이용현황
교육시설	부석어린이집	교사 2명, 아동 6명
	부석초등학교	6개 학급, 53명 학생 재학 중 ('19.05.기준)
	부석중학교	3개 학급, 22명 학생 재학 중 ('19.05.기준)
의료시설	의원	배의원(부석로 39) 1곳
	한의원	부석한의원(소천로 39) 1곳
	보건지소	부석면보건지소(부석로 26) 1곳
	보건진료소	임곡리보건진료소(영부로106번길 18-6), 상석리보건진료소(의상로 1324-8) 총 2곳
문화시설	과학관	콩세계과학관(영부로 23) 1곳, 2017년 한 해 총 30,726명 방문
노인시설	경로당	부석면 내 총 31곳
	노인교실	부석교회 부설 노인교실(부석로 58) 1곳
기타시설	주민자치센터	2010년 건축, 2012년 2층으로 증축(연면적 559.3㎡) 다목적실, 체력단련실, 문화교실, 자치센터위원실, 회의실로 이용, 국학기공, 사교댄스, 고전무용, 중국어, 색소폰 등 프로그램 운영

부석면사무소의 가치요소를 고민하다

(구)부석면사무소는 약 80여 년의 시간이 응축된 공간으로, 약 50여 년간 면사무소로서 지역의 거점공간으로 기능했던 곳이다. (구)부석면사무소의 역사적·사회문화적·공동체적 가치 기반의 보전·활용을 위해서는 (구)부석면사무소의 보전과 활용 범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범위를 설정하는 데 있어 우선, (구)부석면사무소의 사무동과 나란하게 붙어 있는 (구)관사동에 대한 가치판단이 필요했다. (구)관사동은 (구)부석면사무소가 건축된 이후 증축된 부분으로, 현재는 숙직실 겸 창고로 활용되고 있다. (구)관사동에 쌓인 삶의 궤적과 (구)부석면사무소와 함께 활용했을 때의 공간적 연속성 측면에서 고려한다면 (구)관사동 역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구)부석면사무소 목조트러스의 경우, 일반적인 구법으로 볼 수 있으나 사재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일부 곡선인 자연상태의 목재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그 당시의 생활상을 추측할 수 있는 요소로 판단하였다. 일부 지붕의 누수로 인해 손상된 곳이 있으나 대부분의 트러스 목재 상태가 양호하여 그대로 보전하기로 결정하였다.

(구)부석면사무소의 외벽은 여러 번의 뿜칠로 본래의 형태를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부석교회 옛 본당의 외벽과 연속성을 주고 싶다는 영주시의 의견에 따라 현재의 모습대로 보전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구)부석면사무소의 공간적인 활용성을 고려하여 내부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내벽은 철거하기로 결정하였다.

벽체와 지붕, 창문은 보수가 필요한 상태로, 벽체 일부의 균열과 벗겨진 부분에 대한 보수와 파손된 지붕기와의 교체 및 방습·단열에 대한 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벽체보수 순서

❶ 가볍게 손상된 벽체 보수

- 가볍게 손상된 흙벽체를 가볍게 긁어 요철을 만든다.
- 먼지를 털어내고 물을 뿌려 적신다.
- 석회반죽을 얇게 바른다. (총 3회)

❷ 넓게 움푹 패인 벽체 보수

- 움푹 패인 벽체에 잔나무 가지 쐐기를 벽체가 깨지지 않을 정도로 촘촘히 박는다.
- 먼지를 털어내고 물을 뿌려 적신다.
- 석회반죽을 얇게 바른다. (총 3회)

지붕보수 순서

❶ 기존 시멘트기와(일식기와) 철거

- 기존 기와 중 파손된 기와를 포함하여 위치 및 순서에 맞게 철거 (기와에 번호표를 붙이고 도면에 표시하면서 철거)

❷ 몰탈기와걸이 철거 후 청소

- 기와걸이 철거 및 청소

❸ 방수시트 깔고 기와걸이 시공

- 부직포 방수시트를 깔고 기와걸이 재시공

❹ 시멘트기와 재시공(파손기와 교체)

- 철거 시 작성했던 기와위치 도면과 번호표를 보며 기와를 다시 얹어 시공 (파손된 기와는 교체)

창문보수 순서

❶ 기존 창호(알루미늄 소재)를 철거하여 랩핑 후 재설치

- 기존 창 철거 후 창호를 보양하여 이동
- 유리상태 확인 후 창호 랩핑 및 재설치, 창호 주변 마감

❷ 기존 창문(목재 소재)을 철거한 후 목재 창호를 제작하여 설치

- 기존 목재 창호를 철거한 후 표면처리
- 창호 초벌도색 후 충분히 건조
- 에어브러쉬로 재도색 후 충분히 건조
- 기존 위치에 재설치

지역전문가, 주민과 함께 부석면사무소를 계획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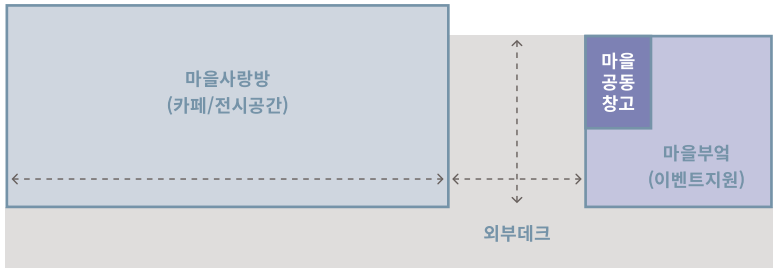
건축문화자산센터는 (구)부석면사무소의 보전·활용 계획안을 지역전문가와 지역주민들과 함께 논의하고자 계획안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제안한 계획안은 총 세 가지 대안이었다. 세 가지 대안 모두 (구)부석면사무소 사무동을 커뮤니티 활성화 공간인 '마을사랑방카페+전시공간'으로 계획하였고, (구)관사동을 마을공용공간인 '마을부엌'과 '마을공용창고'로 계획하였다. 세 가지 대안에서 (구)사무동의 보전·활용계획은 동일하지만, (구)관사동을 보전·활용하는 방식과 외부데크를 조성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첫 번째 대안은 (구)사무동을 커뮤니티 활성화 공간인 '마을사랑방카페+전시공간'으로 계획하고, (구)관사동의 일부를 부석면 내 축제, 행사 등을 개최할 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용공간인 '마을부엌'으로 계획하는 방안이었다. (구)사무동과 (구)관사동의 접합부를 외부데크로 개방하여, 마을사랑방과 마을부엌의 동선을 명확하게 분리하고 외부데크를 통해 외부공간과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구)사무동의 공간과 구조재 등 철거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구)관사동의 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계획하여 각 부위의 노후도와 훼손정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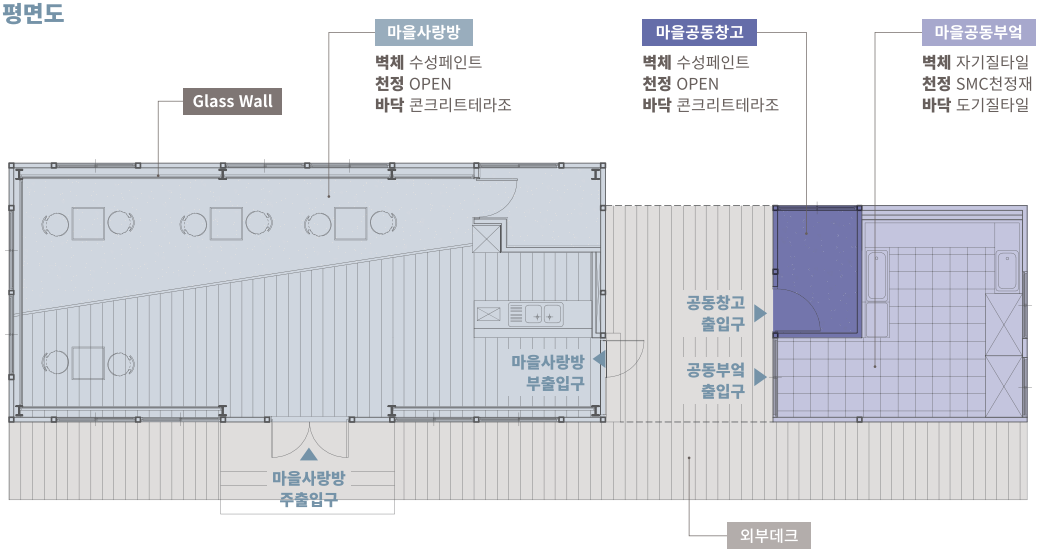
두 번째 대안은 첫 번째 대안과 동일하게 (구)사무동을 '마을사랑방'으로 계획하되 (구)관사동의 숙직실 일부를 '마을공용창고'로, (구)관사동의 숙직실과 창고를 '마을부엌'으로 계획하는 방안이었다. (구)관사동의 숙직실 복도를 외부데크로 활용하여 첫 번째 대안보다 외부데크의 면적을 줄여 계획하였다. 건축물의 주요 구조재를 유지하되 칸막이벽은 철거하여 공간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세 번째 대안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대안과 동일하게 (구)사무동을 '마을사랑방'으로 계획하되 (구)관사동의 숙직실을 '마을부엌'으로, (구)관사동의 창고를 '마을공용창고'로 계획하는 방안이었다. (구)관사동의 복도와 창고 일부를 외부데크로 계획하였다.

대안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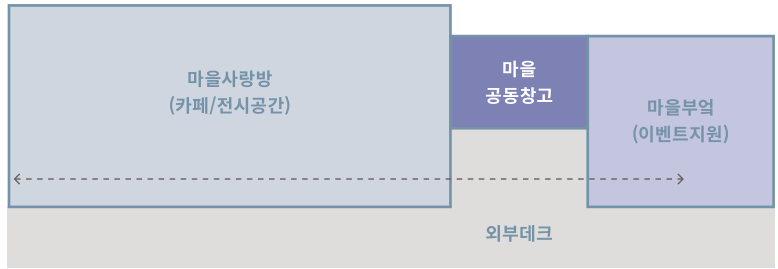

마을사랑방
(카페/전시공간)
마을
공동
창고
마을부엌
(이벤트지원)
외부데크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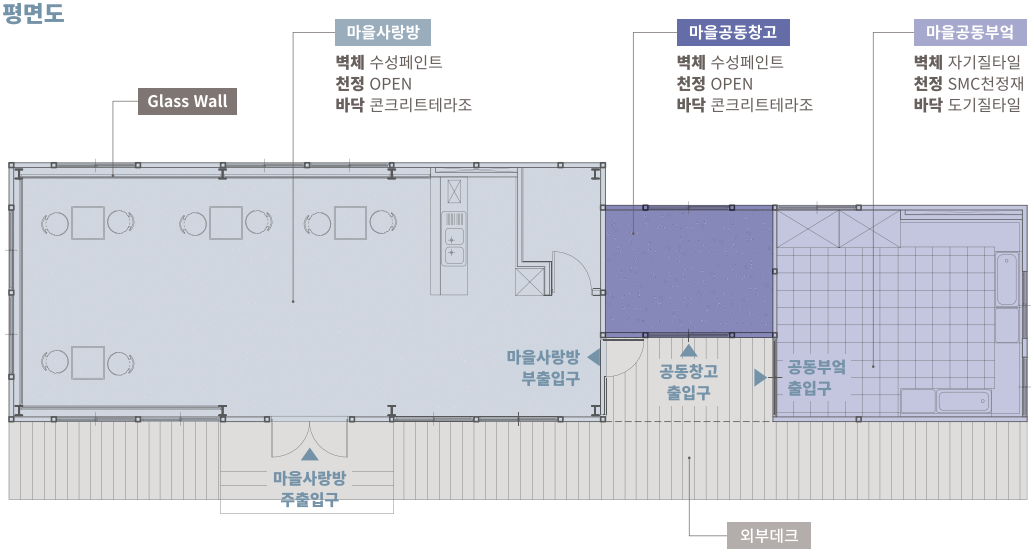

마을사랑방
벽체 수성페인트
천정 OPEN
바닥 콘크리트테라조
Glass Wall
마을공동창고
벽체 수성페인트
천정 OPEN
바닥 콘크리트테라조
마을공동부엌
벽체 자기질타일
천정 SMC천정재
바닥 도기질타일
공동창고
출입구
공동부엌
출입구
마을사랑방
부출입구
마을사랑방
주출입구
외부데크

입면도

대안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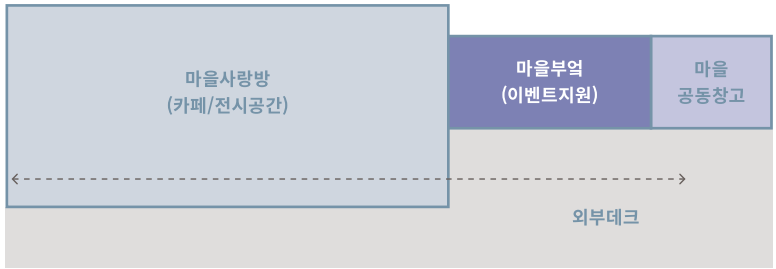

마을사랑방
(카페/전시공간)
마을
공동창고
마을부엌
(이벤트지원)
외부데크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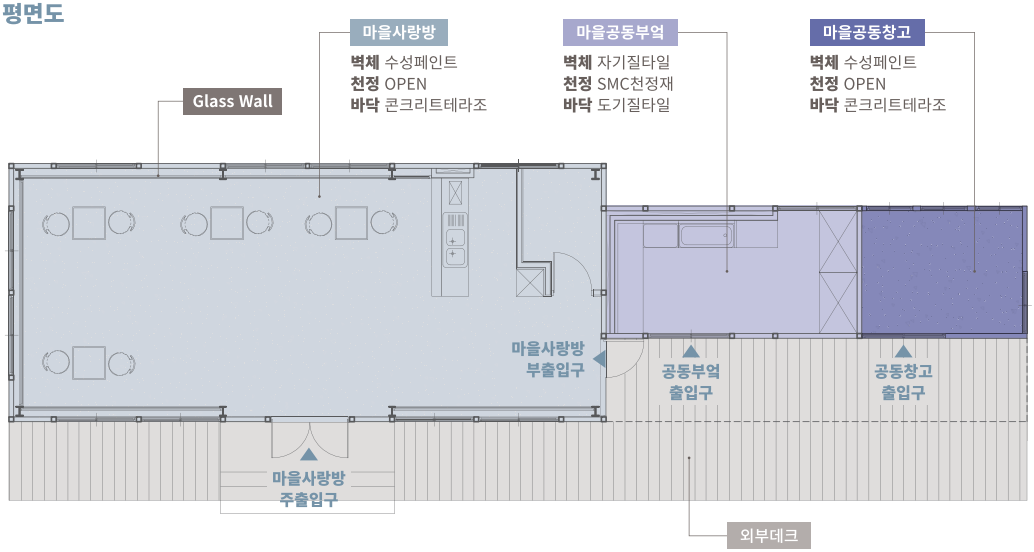

마을사랑방
벽체 수성페인트
천정 OPEN
바닥 콘크리트테라조
Glass Wall
마을공동창고
벽체 수성페인트
천정 OPEN
바닥 콘크리트테라조
마을공동부엌
벽체 자기질타일
천정 SMC천정재
바닥 도기질타일
마을사랑방
부출입구
공동창고
출입구
공동부엌
출입구
마을사랑방
주출입구
외부데크

입면도

대안3


마을사랑방
(카페/전시공간)
마을부엌
(이벤트지원)
마을
공동창고
외부데크

평면도


마을사랑방
벽체 수성페인트
천정 OPEN
바닥 콘크리트테라조
마을공동부엌
벽체 자기질타일
천정 SMC천정재
바닥 도기질타일
마을공동창고
벽체 수성페인트
천정 OPEN
바닥 콘크리트테라조
Glass Wall
마을사랑방
부출입구
공동부엌
출입구
공동창고
출입구
마을사랑방
주출입구
외부데크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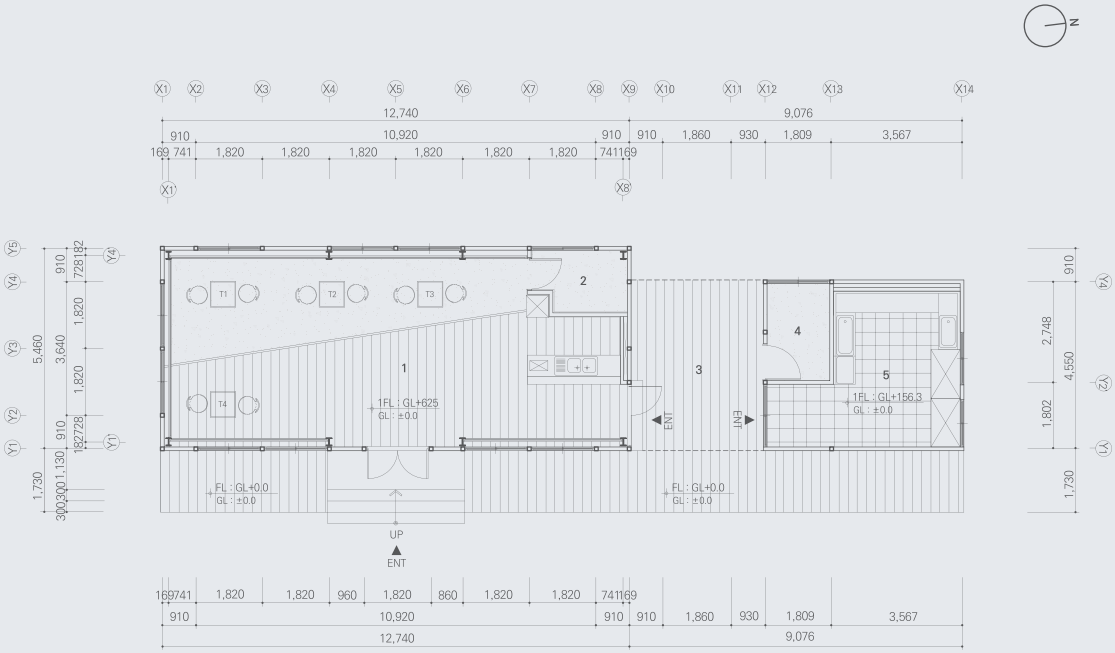
(구)부석면사무소의 세 가지 보전·활용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 결과 첫 번째 대안에 대해 지역주민과 지역전문가들이 모두 동의하였으나, 몇 가지 개선 및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지역주민들은 계획된 마을부엌의 면적이 좁고 주방동선이 긴 점을 지적하였다. 오히려 마을부엌보다는 마을행사 때 필요한 음식재료들을 모아둘 수 있도록 창고 기능을 부각시키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에 '마을사랑방'과 '마을부엌', '마을공용창고'에 대한 주민이용동선을 합리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영주시청 건축과의 안창주 팀장은 (구)부석면사무소가 재난창고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부 공간에 재난창고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향후 (구)부석면사무소 부지 내 창고를 증축하여 재난방재 물품 등을 보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전문가로 참석한 동양대학교 배준현 교수는 기능적으로 사랑방과 공동주방을 분리하기보다는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고, 운영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수익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운영방안을 고민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영남대학교 도현학 교수는 설비라인 등을 고려하여 주방을 인접시키는 방안과 '마을사랑방'의 이용객 편의를 위한 장애인 램프 및 단열성능 향상을 위한 방풍실 설치를 제안하였다. 영주시 도시건축관리단 신승수 단장은 오히려 내부를 비워두고 가변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에 영주시는 지역전문가와 지역주민들과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2020년 (구)부석면사무소의 활용계획을 포함하는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 지원사업'의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첫 번째 대안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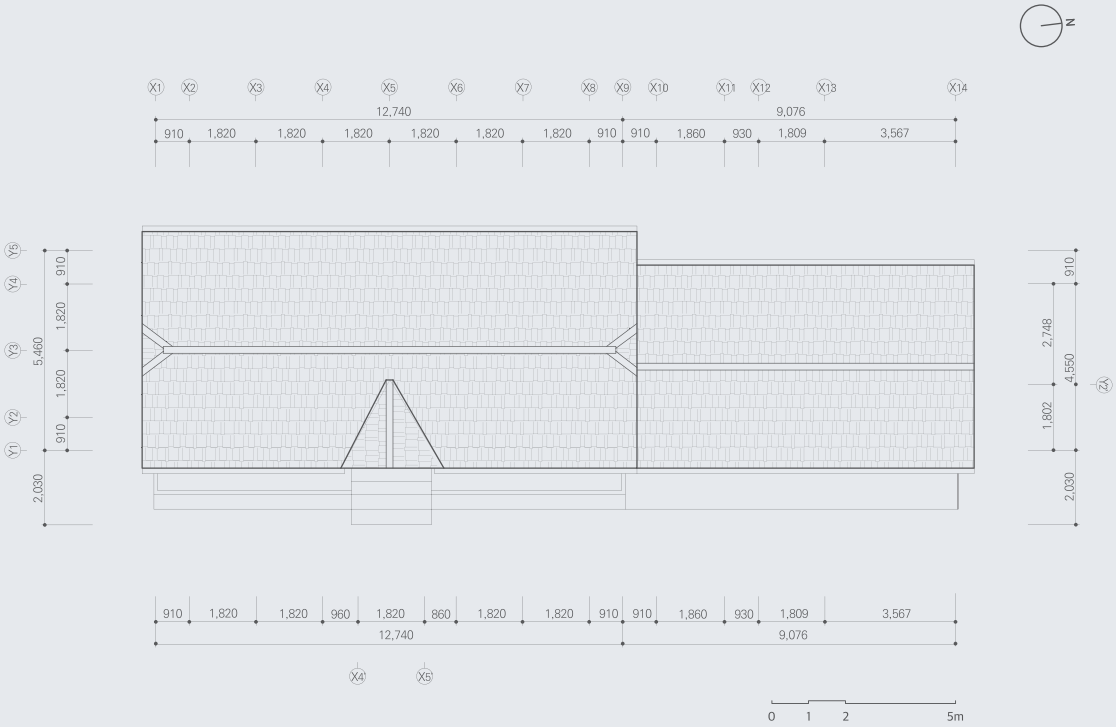
대안1 |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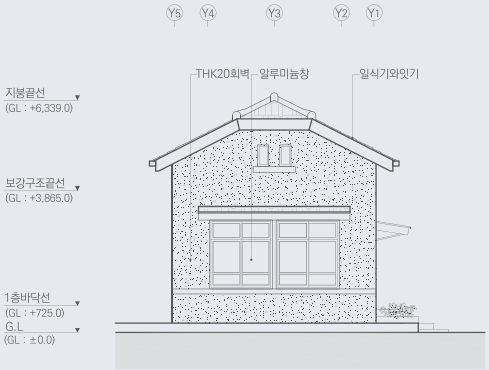
1 마을사랑방
2 창고
3 데크
4 마을공용창고
5 마을공동부엌(싱크대는 화기제외, 업소용냉장고 2ea)

0 1 2 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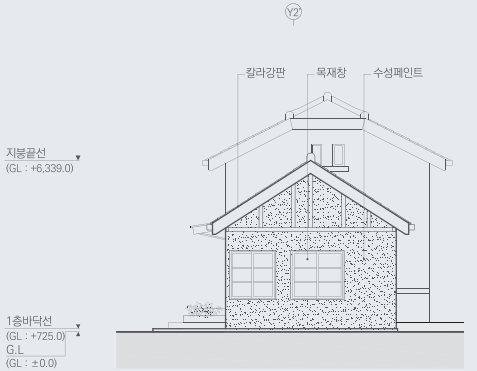
대안1 | 지붕평면도


N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3 X14
12,740
9,076
910 1,820 1,820 1,820 1,820 1,820 1,820 910 910 1,860 930 1,809 3,567
Y1 Y2 Y3 Y4 Y5
910 1,820 1,820 910
5,460
2,030
910 2,748 4,550 1,802 2,030
Z1
910 1,820 1,820 960 1,820 860 1,820 1,820 910 910 1,860 930 1,809 3,567
12,740
9,076
X4' X5'
0 1 2 5m

대안1 |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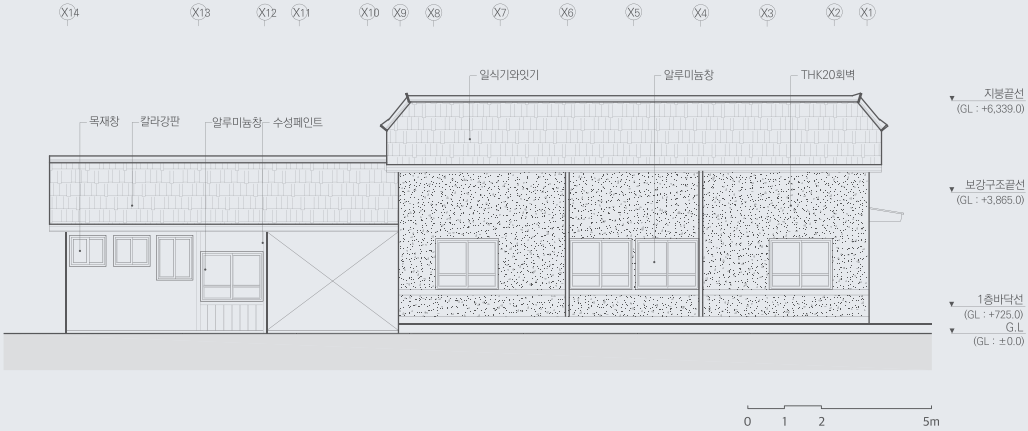


대안1 |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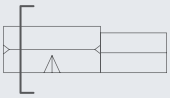
대안1 |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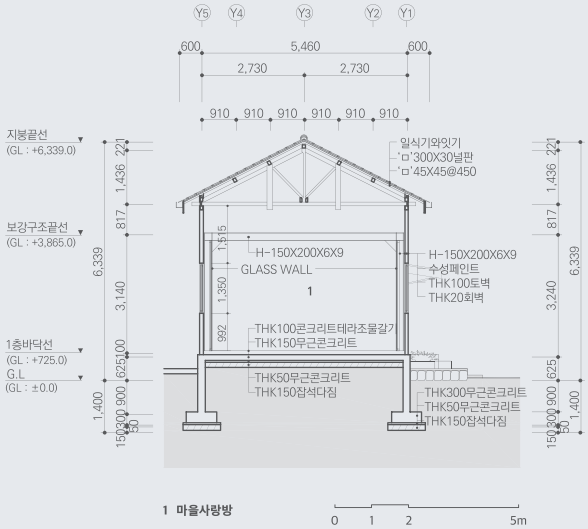
대안1 | 배면도



대안1 | 종단면도

(구)사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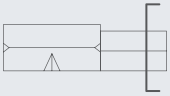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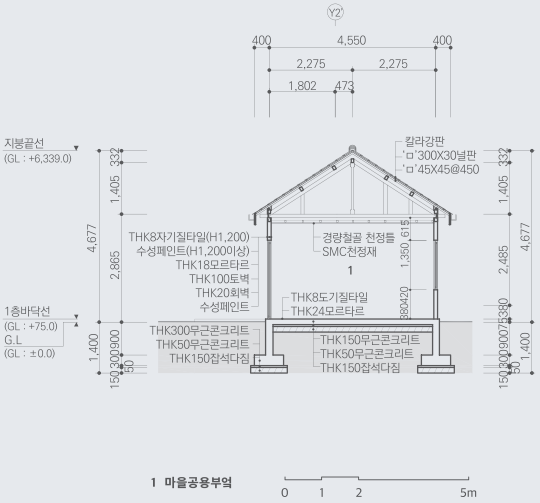


1 마을사랑방

대안1 | 종단면도

(구)관사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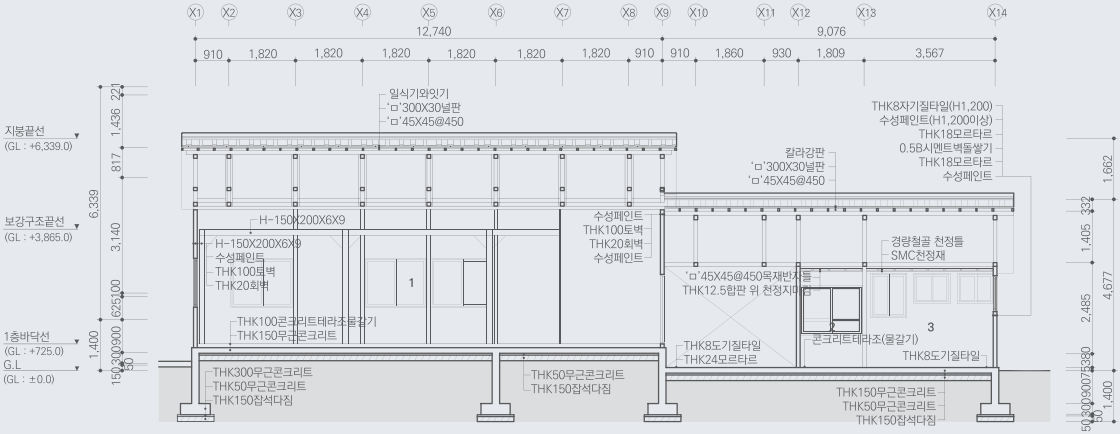




1 마을공용부엌

0 1 2 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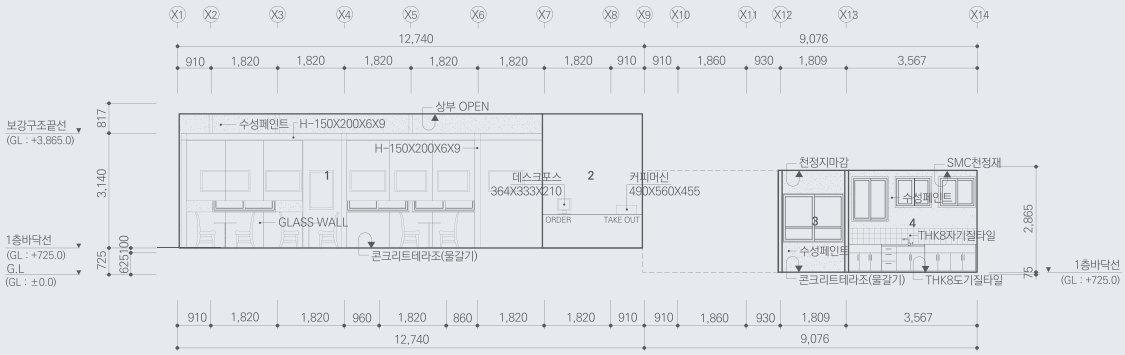
대안1 | 횡단면도



1 마을사랑방
2 마을공용창고
3 마을공용부엌

0 1 2 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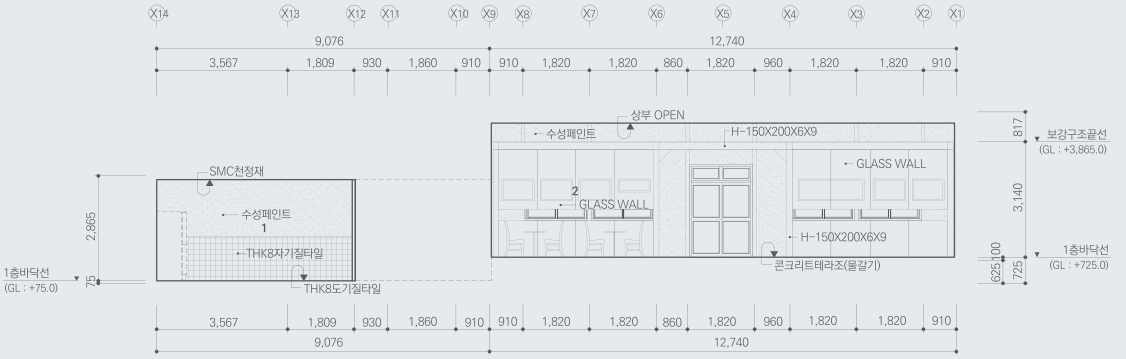
대안1 | 전개도 A



1 마을사랑방 **3 마을공용창고**
2 바리스타존 **4 마을공용부엌**

0 1 2 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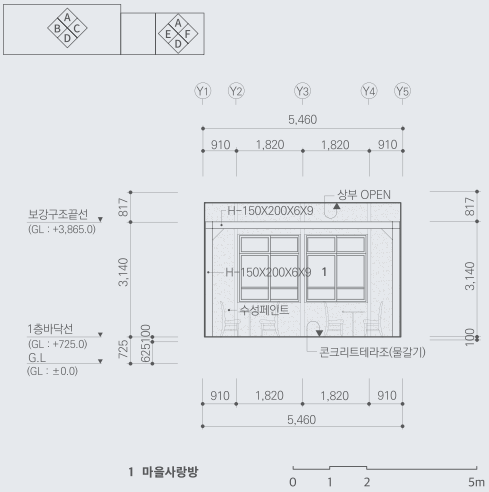
대안1 | 전개도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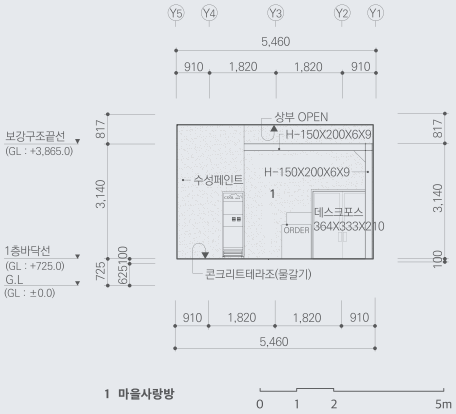
1 마을공용부엌
2 마을사랑방

0 1 2 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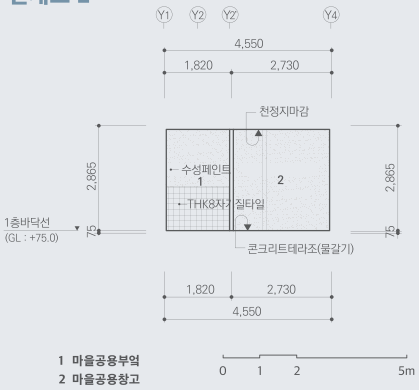
대안1 | 전개도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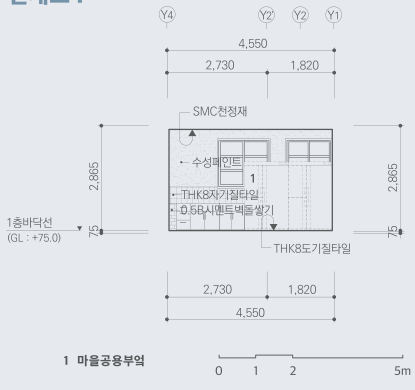
대안1 | 전개도 C



대안1 | 전개도 E



대안1 | 전개도 F



대안-1의 투시도

대안-1에서 '마을사랑방'의 내부투시도

5

지역에게 공간을 돌려주다

향후 (구)부석면사무소를 마을카페 및 마을부엌으로 활용 시, 전기·수도 비용 등은 영주시에서 예산을 마련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새마을부녀회가 청소와 같은 기본적인 유지관리를 하되 운영주체로도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 지역주민 대표, 지역주민단체, 전문가 등이 포함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협의과정을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구)부석면사무소를 운영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영주시에서는 (구)부석면사무소의 활용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2019년 경상북도의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 지원사업'에 지원하여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본 사업은 지역활성화지역 등 낙후지역의 투자촉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영주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부석사, 근대 등록문화재로 추진 중인 부석교회 옛 본당과 건축자산인 (구)부석면사무소를 연계하여 '1269, 부석의 시간'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2020년 (구)부석면사무소를 포함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도비와 시비를 매칭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2021년에는 (구)부석면사무소의 리모델링 공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II

충남 부여군 (구)자온양조장

(구)자온양조장은 1930년대에 지어진 건축물로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의 성장과 쇠퇴를 주민과 함께 겪어온 공간이다. (구)자온양조장은 규암리의 역사가 담긴 주요 건축물들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단일 건축자산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규암리의 이야기를 주위 건축물들과 함께 담고 있다는 가치가 있다. 건축문화자산센터는 이러한 가치와 더불어 건축자산으로서의 잠재적 활용 및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구)자온양조장을 민간소유 건축자산의 보전·활용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건축문화자산센터는 (구)자온양조장의 소유주인 ㈜세간의 '자온길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면面'단위 체험형 문화콘텐츠 마을로서 건축자산의 보전과 활용에 대해 기획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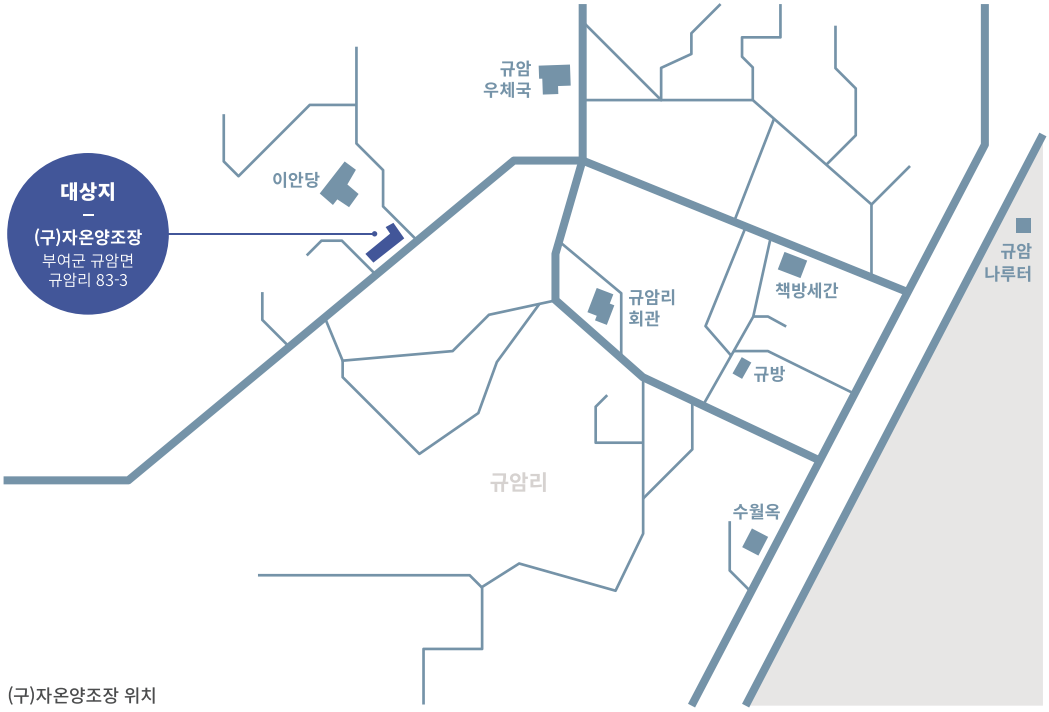
1 자온양조장과 규암 060
2 (구)자온양조장의 가치를 인식하다 062
3 (구)자온양조장, 규암마을과 함께하다 075
4 (구)자온양조장의 활용을 위해 공공이 지원하다 080
5 (구)자온양조장, 다시 문을 열기 위해 머리를 맞대다 082
6 지역문화공간으로 변화하다 102

1 자온양조장과 규암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83-3에 위치한 (구)자온양조장은 규암리의 발전과 쇠퇴를 함께한 건축물이다. 규암리는 일제 강점기에 규암나루가 부여-규암-강경을 통하는 물자 수송 경로로 이용되면서 번창한 지역이었다. 1930년대에 지어진 (구)자온양조장은 규암리를 오고가는 사람들이 드나들던 규암리의 대표적인 양조장이었다.

하지만 1968년 규암나루 인근에 백제교가 건설되고 규암나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감소하면서 규암리는 자연스럽게 쇠퇴하였다. (구)자온양조장 또한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1990년대에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다. 이후 (구)자온양조장 일대는 지역주택조합사업 대상지에 포함되어 사라질 위기도 있었지만 자온길 프로젝트[1]로 인해 보전될 수 있게 되었다.

1 ㈜세간에서 부여군 규암리의 자온로 및 수북로를 중심으로 총 16개 건축물을 매입·임차하여 전통 공예와 예술을 경험하는 문화콘텐츠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프로젝트



(구)자온양조장 위치

도로에서 바라보는 (구)자온양조장 정면 모습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예정부지였음을 알 수 있는 간판이 아직 남아 있다.

2 (구)자온양조장의 가치를 인식하다

자온길 프로젝트, (구)자온양조장을 발굴하다

(구)자온양조장은 예전에 '우씨 어르신'이 운영하던 양조장이었다. 우씨 어르신은 이 근방에서는 굉장한 부자였었는데, 한때 우씨 어르신의 땅을 밟지 않고는 부여를 다닐 수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양조장 뒤편에 위치하고 있는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한옥은 자온양조장의 주인이었던 우씨 일가가 살던 가정집으로, T자형 평면의 팔작지붕구조로 되어 있으며 부유했던 집안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크다. 지역의 생활상을 담고 있는 (구)자온양조장과 한옥 그리고 주변의 부속 건축물들은 자온길 프로젝트가 추진되지 않았다면 사라졌을 수도 있었던 건축물들이다.

(구)자온양조장은 자온길 프로젝트의 중요한 거점시설로 ㈜세간에서 가장 힘들게 매입한 부지에 위치하고 있다. (구)자온양조장이 위치한 부지는 양조장이 폐업한 후 싱크대 공장의 창고로 이용되었고, 2016년에는 지역주택조합사업 대상지에 포함되었다. 자온길 프로젝트 거점시설 매입을 위한 현황 조사 당시, (구)자온양조장과 뒤편에 있는 한옥 등의 건축물들은 아파트 개발부지에 포함되어 부동산 계약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였고, 값이 꽤 나가던 한옥 주변의 조경수와 석재는 이미 팔려나가 마당은 크게 훼손되어 있었다. 그러던 중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던 건설사가 갑작스런 부도를 맞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계약은 무산될 위기에 놓였었다. 이에 ㈜세간 박경아 대표는 이 일대를 지키기 위해 집주인을 끊

임없이 설득했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구)자온양조장, 양조장 주인댁 한옥, 그리고 부속 건축물이 포함된 대지 약 3천 평을 자온길 프로젝트의 대상지로 매입할 수 있었다.

매입 당시 (구)자온양조장 주변은 아파트 개발부지로 건설사에 매입되기 전 (구)자온양조장을 창고로 이용했었던 싱크대 공장의 폐기물들과 마을의 각종 쓰레기들로 가득 메워져 있었다. 부지를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해 중장비들과 대형 트럭이 투입되는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건축물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자개장과 생활소품 등 값진 물건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구)자온양조장과 양조장 주인댁 한옥 등 지역의 역사를 담고 있는 건축물의 가치를 다시 발굴할 수 있었다.

©윤준환

(구)자온양조장, 한옥 그리고 부속 건축물 등이 포함된 대지 전경

(구)자온양조장 주변을 정리하는 모습

(구)자온양조장 주변에서 치운 쓰레기와 자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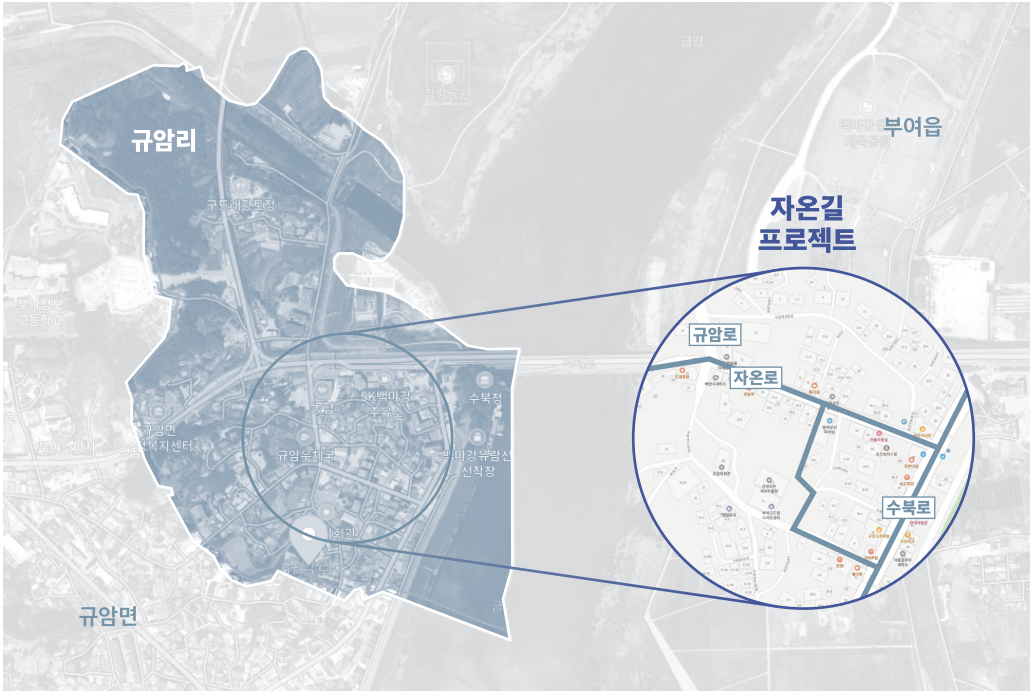
작은 공예문화마을을 꿈꾸는 자온길 프로젝트

(구)자온양조장은 박경아 대표가 규암마을에 대한 관심과 (구)자온양조장의 가치를 발견하면서부터 보전·활용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박경아 대표는 부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전통미술공예를 공부한 후 서울 인사동 쌈지길에 3평 매장을 열어 전통공예 아트샵 운영을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세간'[2]의 시작이었다.

박경아 대표는 약 15년간 '㈜세간'을 운영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인사동, 삼청동 등에 자리잡았던 공예작가들의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였다. 월 50만원이었던 임대료가 500만원까지 높아지면서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재능 있는 작가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작업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며 박경아 대표는 전통공예 작가들이 임대료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작업할 수 있고, 일반인들이 전통공예문화를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전통공예거리를 조성하고자 자온길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이미 몇 번의 젠트리피케이션을 겪고 그로 인한 폐해를 봐 온 박경아 대표는 외부 여건으로 인해 프로젝트의 정체성이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가가 낮고 지역의 잠재적 가치가 풍부한 지방의 중·소도시 마을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생각이 가능했던 이유는 박경아 대표의 개인적인 경험 덕분이었다. 부여에서 대학을 나온 박경아 대표는 지방도시의 아름다운 가치와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었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부여 백마강변에 위치한 작은 마을인 규암리를 자온길 프로젝트의 대상지로 선택하게 되었다. 규암리는 현재 주목받지 못하는 작은 마을이지만 한때 부여에서 가장 번성했었던 마을로, 백마강에 맞닿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옛 영광의 흔적이 남겨져 있는 곳이다. 박경아 대표는 이 작은 마을에서 자온길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하였다.

2 '㈜세간'은 박경아 대표가 운영하는 공예회사로 서울 삼청동과 파주 헤이리에서 한국적 감성을 담은 생활용품을 제작·판매하는 매장이 운영되고 있다.



부여 자온길 프로젝트의 공간적 범위
지도 출처: 다음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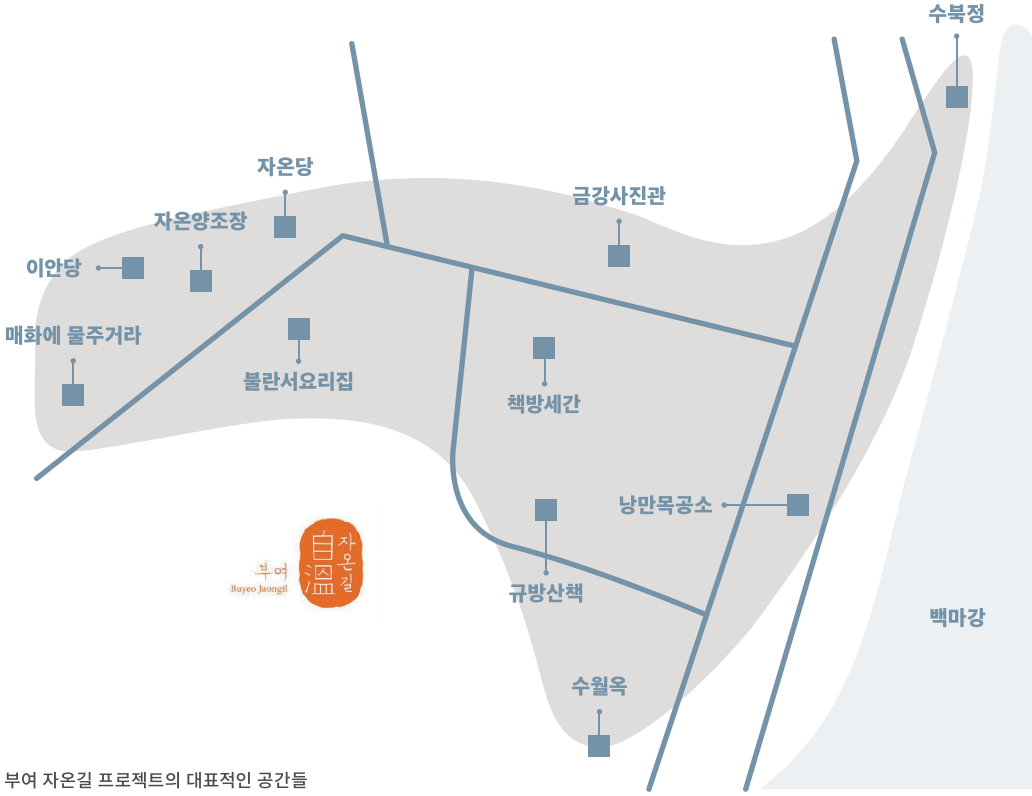
박경아 대표는 자온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작가들이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내쫓기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임대하지 않고 직접 매입하거나 장기임대10년하여 사업을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또한 '면面'단위 체험형 문화콘텐츠 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작가들은 자유롭게 작업 활동을 하고, 방문자와 주민들은 자온길에 머물면서 작가들의 작품을 접하고 체험하면서 여유와 휴식을 누릴수 있는 작은 마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에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규암면 자온로와 수북로 일대의 약 4천 평 부지, 건축물 16동을 매입하여 자온길 프로젝트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건축물들을 매입할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은 건축물이 간직하고 있는 스토리와 건축물 간의 여백이었다. 자온길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건축물들은 각각 규암리의 역사, 문화,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오랫동안 지역의 사랑방 역할을 했던 담배 가게, 주민들의 성장과정과 이야기를 기록했던 사진관, 규암리가 번창했던 시절에 있었던 요정, 일제 강점기의 마을극장, 우체국 등 건축물들은 각각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건축물 16개동들은 규암리의 주요 도로인 수북로, 자온로를 중심으로 건축물 간에 여백을 두고 위치한다. 건축물 사이의 여백들은 자온길 프로젝트 외 다양한 주체들이 채울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즉 자온길 프로젝트 시작을 통해 다양한 주체들이 지역의 가치를 공감하고 여백의 공간들에 새로운 콘텐츠를 넣어 지역의 활성화와 함께 자연스러운 문화콘텐츠 마을로서의 성장을 유도하고자 하였다[3].

3 자온길 프로젝트 지역인 수북로, 자온로 일대에 '책방세간' 오픈 후 7개의 새로운 가게들이 생겼으며, 계속해서 새로운 주체들이 합류하며 새로운 공간이 조성되고 있다.

현재는 책방세간(구)담배 가게, 규방(구)주막, 이안당(구)자온양조장 주인댁, 수월옥 등 총 4개의 건축물이 각각 책방, 공예작업실 겸 판매공간, 한옥숙박시설, 카페 및 주점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외 건축물들도 단계별로 문화체험, 숙박시설 등으로 조성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부여 자온길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공간들

(구)마을극장

(구)노인사랑방

(구)자온양조장 인근 한옥

(구)상점

(구)우체국

공사가 중지된 건물

향후 문화체험시설로 조성 예정인 건축물들

자온길 프로젝트의 주요 공간

공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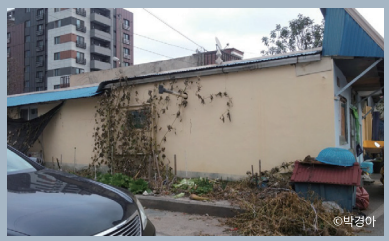
임씨네 담배 가게에서
동네 서점으로 활용된
'책방세간'

책방세간의 예전 모습과 공사 과정

책방세간의 정면 및 내부 모습

공간2

옛날 5일장의
주막에서
전통공예공방으로
활용된 '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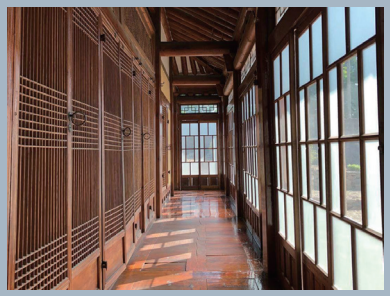
규방의 예전 모습과 공사 과정

규방의 정면 및 내부 모습

공간3

(구)자온양조장의
주인댁에서
한옥숙박시설로
활용된 '이안당'

이안당의 정면 모습



이안당의 내부 모습

공간 4

옛 요정에서 카페와
술집으로 활용된
'수월옥'

수월옥의 공사 전 모습

수월옥의 외부 및 내부 모습

자온길 프로젝트와 함께 온기 있던 시절로 다시 회복되다

박경아 대표가 자온길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은 침체된 지역이 자온길 프로젝트로 인해 사람들이 찾아오고 북적이는 마을로 변화하는 것이었다. 자온길이라는 이름도 '스스로 따뜻해지다' 라는 의미의 '자온대自溫臺'에서 따왔다. 자온길 프로젝트를 통해 조성된 공간의 명칭은 기존 건축물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여 지역의 장소성과 정서에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하였다.

자온길 프로젝트의 공간들은 주민들에게 열려 있는 곳이다. 처음 문을 연 '책방세간' 뒷마당은 핸드메이드 플리마켓이 열려 지역 주민들이 '책방세간'이라는 공간과 ㈜세간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자온길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소통공간이다. 그리고 그 뒤로 '규방'이나 '이안당' 등 자온길 프로젝트의 다른 공간들도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예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과 계속해서 소통할 수 있는 장場이 되고 있다.

"노인들만 사는 시골에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 주어서 너무 고맙고 서점에서 여름이면 시원하게, 겨울이면 따뜻하게 책을 볼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즐거워요. 그리고 공예를 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만 했는데 실제로 공예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마을에 있는 것이 너무나 가슴 뿌듯해요"

—— 규암마을 부녀회장 인터뷰 중

자온길 프로젝트의 공간들에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지역의 분위기도 변화하였다. 흉물처럼 방치되던 건축물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면서 지역 주민들은 마을이 가지고 있는 건축물들의 가치와 규암마을의 잠재적 가치도 알게 되었다.

"㈜세간이 들어오기 전에 이곳은 1년에 7~8채씩 멸실을 신청할 정도로 낙후된 곳이었어요. 하지만 ㈜세간에서 하는 활동을 직접 보고 동네 주민들도 생각을 고쳤어요. 이제는 멸실 신청도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동네가 너무 활기차 졌어요."

—— 전 규암면장 인터뷰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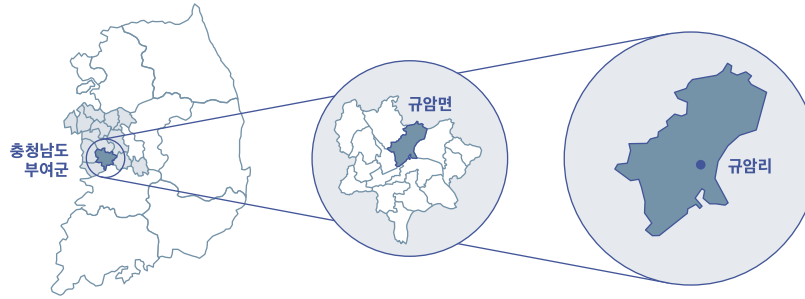
핸드메이드 플리마켓 모습

마을 어르신들 생신잔치

3 (구)자온양조장, 규암마을과 함께하다

규암마을의 옛이야기를 들어보다

(구)자온양조장이 위치한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는 부여에서 가장 발달한 지역인 부여읍과 금강에 맞닿아 있는 지역이다. 규암리는 규암면 19개 리 중에서 0.62㎢로 면적이 가장 작지만 굴곡진 역사를 가진 지역이다.



규암리 위치

규암리의 역사는 백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여는 백제시대의 수도로 본래 '사비일명 소부리'로 불리었지만 백제의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로 이전함에 따라 국호가 백제에서 남부여로 변경되었으며 742~765년경덕대왕에 부여군으로 개칭되었다. 부여는 백제의 중심지로 번성한 지역이었지만 백제 멸망 후 백제의 왕도였던 부여를 견제하기 위해 부여군, 임천현, 홍산현, 석성현의 4개 군현 체제로 분할 통치되며 웅천주지금의 공주에 부속되어 그

세력이 크게 위축되었다. 부여에 대한 분할통치는 조선시대까지 유지되었으나 고종 33년1896 13도 설치를 계기로 독립되었다. 이후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16개 면으로 구성된 현재의 부여군으로 형성되었다.[4]

부여의 변천표

시대	백제			통일신라	고려		조선		현재
	초기	중기	말기		성종	예종	태종	고종	
예속도	-	-	-	웅천주 및 웅주	하남도	양광도	충청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명칭	-	소부리	남부여(수도)	부여군	부여현		부여현	부여군	부여군

출처: 부여군지편찬위원회(2003), 온라인부여군지 '제2권 부여의 역사-제3장 백제의 역사- 제1절 한강시대와 영토팽창' 참고 재작성

규암면은 백제가 나당군에 의해 점령된 후 백제부흥군의 요람지였던 곳으로 통일신라시대 이후 부여군에 계속해서 속해 있었으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전까지 부여군 천을면에 해당하였다.[5] 규암리라는 명칭은 행정구역 개편 이후 공식적으로 사용된 명칭이다. '규암'은 과거 엿바우 또는 규암窺(엿볼규)岩(바위암)이라 불리었는데 이는 백마강변에 있는 자온대自溫臺의 형태에서 유래하였다. 자온대는 강에서 엿보는 형태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삼국시대에 백제군이 바위에 숨어서 적을 엿보아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다.[6] 또한 규암리는 금강 주변에 사창, 해창 등의 여러 창倉이 위치하였기 때문에 과거 창리라고 불리기도 하였다.[7]

4 부여군지편찬위원회(2003), 온라인부여군지 '제2권 부여의 역사-제3장 백제의 역사- 제1절 한강시대와 영토팽창' (http://tour.buyeo.go.kr/html/tour/culture/culture_0307.html)

5 부여군지편찬위원회(2003), 온라인부여군지 '제1권 부여의 지리-<부록> 부여군 마을 유래-2. 규암면 마을 유래' (http://tour.buyeo.go.kr/html/tour/culture/culture_0307.html)

6 오석민(2010), 「금강의 옛 포구와 장시」, 『충남의 민속문화』, 국립민속박물관, p.270.

7 정래진(2010), 「규암리와 규암나루의 변화」, 『考古와 民俗』, v.13, p.42.

(구)자온양조장, 규암마을의 성장과 쇠퇴를 함께하다

부여읍과 규암면 사이로 흐르는 금강은 예전부터 주요 내륙 수로로 이용되며 인근 지역의 발전을 이끌었던 주요한 지리적 자원이다. 특히 조선시대 후기에 이르러 농업 생산력의 증가와 교통의 발달로 인해 금강유역은 충청도·전라도 일대의 농산물이 집결되는 유통로로 발전하게 되었다.[8] 이러한 금강유역의 발전은 규암나루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규암나루는 규암면 규암리에 위치한 나루로 조선시대 후기 이전에는 인근 지역으로 유입되는 물건을 내보내거나 싣는 역할만 하였다. 조선시대 기록을 살펴보면, 조선후기에 들어서야 18세기의 「해동지도」, 1872년 「부여현지도」에 규암진에 대한 기록이 나타난다. 즉 19세기 후반 주변 지역의 저습지가 개간되면서, 구룡평야와 규암평야 지역의 미곡을 동시에 저장 가능한 규암포구가 부상하였다. 육상교통망이 재편성되면서 인근의 고성진과 구교리 포구의 기능이 규암으로 통합되었고 규암나루는 활발하게 이용되기 시작하였다.[9] 그리고 규암나루가 위치한 규암리 또한 빠르게 발전하였다.

또한 규암나루가 일제 강점기에 이르러 부여-규암-강경을 통하는 물자 수송 경로로 이용되면서 규암나루와 규암리는 내륙수로의 중간 귀착지로서 더욱 성장하게 되었다.[10]

8 정래진(2010), 「규암리와 규암나루의 변화」, 『考古와 民俗』, v.13, p.44.

9 오석민(2010), 「금강의 옛 포구와 장시」, 충남의 민속문화』, 국립민속박물관, p.268~269.

10 부여군지편찬위원회(2003), 온라인부여군지 '제2권 부여의 역사-제7장 일제통치하의 부여-제1절 인문지리 및 사회경제 환경-1. 인구현황과 직업구성'

1927년 부여지역의 포구 및 진출입 화물량 규모

포구명	운항가능 선박 규모	진출입 화물량	위치
입포(笠浦)	400석 적재 이하	2,997톤	부여군 양화면 입포리
반조원(頒詔院)	–	–	부여군 세도면 반조원리
장암리(長岩里)	–	–	부여군 장암면 정암리
규암리(窺巖里)*	200석 적재 이하	4,203톤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구교리(舊校里)	–	–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 규암포구의 진출입 화물량 규모가 가장 큼**

출처: 오석민(2010), 「금강의 옛 포구와 장시」, 『충남의 민속문화』, 국립민속박물관, p.233 일부 발췌.

규암리는 규암면과 부여읍을 잇는 교통의 요지로 사람들은 목교나 배다리를 이용하거나 규암나루 도선장를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했고, '넓적배'를 이용하여 버스나 차를 강 너머로 운반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규암리의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유입되는 인구가 증가하며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규암나루 도선장 주변으로 각종 상가시설, 백화점, 유흥시설 등이 조성되었으며, 1950년대에는 규암나루 주변으로 요정과 주막의 수가 63개소에 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11]

이렇듯 규암리는 규암나루와 함께 발전하며 규암면의 중심지 기능을 하였다. 우체국, 면사무소, 주재소, 소학교, 교회, 동양척식회사 부여지소 등 주요 문화·행정·교육·상업·업무시설 등이 들어섰다.[12] 규암리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경제활동과 유흥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성장하였다.

이는 인구증가율에서도 나타난다. 1930년과 1960년 사이 인구증가율을 비교해보면 부여 다른 지역의 평균 증가율은 약 1.5배지만 규암면의 인구는 9,580명에서 20,447명으로 약 2배 이상 증가하였다.

11 오석민(2010), 「금강의 옛 포구와 장시」, 『충남의 민속문화』, 국립민속박물관, p.269.

12 정래진(2010), 「규암리와 규암나루의 변화」, 『考古와 民俗』, v.13, p.45.

부여군 및 규암면 시대별 인구현황

구분	193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17	증감율*
부여군	115,060	182,041	177,829	153,820	116,908	92,842	75,862	69,086	-62
규암면	9,580	20,447	19,951	16,879	13,151	10,449	10,882	10,741	-47
평균	7,191	11,377	11,114	9,613	7,306	5,802	4,741	4,317	-62

***인구가 가장 많았던 1960년 대비 인구 증감률**

출처: 부여군지편찬위원회(2003), 온라인부여군지(https://tour.buyeo.go.kr/html/tour/culture/culture_0307.html); 부여군, '2010년 12월말 기준 부여군 인구수 및 세대수 현황' 부여군, '2017년 기준 제55회 부여군 통계연보-III. 인구' 참고 재작성.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규암리는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1968년 백제교가 준공되고 국도가 확장되는 등 육로로의 이동이 용이해짐에 따라 규암나루의 기능은 점차 상실되었다. 규암나루의 쇠퇴는 규암나루의 성장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규암리 지역 전반의 쇠퇴로 이어졌다.

(구)자온양조장은 규암리가 한창 성장하던 시기인 1930년대에 개업하였다. 당시 (구)자온양조장은 규암리에서 번창하던 양조장 중 하나로 항상 사람들로 북적이던 곳이었다. 많은 인부들과 손님들이 술을 배달하고 사기 위해 왕래하였다. 하지만 교통편과 산업구조의 변화로 시작된 규암리의 쇠퇴는 (구)자온양조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역으로 유입되고 이동하는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다양한 주종이 생겨남에 따라 결국 (구)자온양조장은 1990년대에 문을 닫게 되었다.

4 (구)자온양조장의 활용을 위해 공공이 지원하다

민간소유의 건축자산을 지원하다

민간소유 건축자산은 보전·활용을 위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공소유 건축자산과는 상이한 부분이 있다. 이에 (구)자온양조장을 대상으로 '2019 건축자산 가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지자체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공공소유의 영주시 (구)부석면사무소와 비교하여 실제 건축자산 보전·활용을 위한 사업 추진 과정의 차이점 및 유사점, 주요 고려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민간소유 건축자산 보전·활용을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는 건축자산의 콘텐츠 기획과 기본 설계안을 수립하여 향후 시공 및 운영을 위한 주요방향 및 디자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에 지원 대상지를 모색하면서 건축자산적 가치뿐만이 아니라 지원사업을 통해 도출된 콘텐츠와 기본 설계안의 실제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건축물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구)자온양조장을 지원하다

(구)자온양조장은 2019년 5월 건축자산 보전·활용사례 발굴을 위해 자온길 프로젝트 대상지를 방문하면서 알게 되었다. 당시 ㈜세간은 앞서 소개했듯이 이미 책방세간, 규방, 수월옥 등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문화공간들을 조성 및 운영하고 있었고, 다음 단계로 운영하기 위한 공간들을 모색하던 차였다.

이에 건축문화자산센터는 박경아 대표와 논의하여 ㈜세간에서 소유하고 있지만 아직 활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건축물 중 건축자산적 가치, 지원사업의 범위, 사업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구)자온양조장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구)자온양조장은 일제 강점기에 건축된 건축물로 낡은 목재 트러스 지붕과 녹슨 양조시설, 굴뚝 등이 지나온 시간을 가늠케 하며, 규암면의 번영과 쇠퇴를 담고 있어 건축물의 옛이야기를 이어 새로운 장소로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자산이다. 이에 건축문화자산센터는 지원사업을 통해 (구)자온양조장을 보전·활용하기 위하여 기획 및 설계과정에서 건축자산의 가치가 실제로 어떻게 보전되고 활용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자온양조장과 인근 건축물들
지도 출처: 다음지도

5

(구)자온양조장, 다시 문을 열기 위해 머리를 맞대다

(구)자온양조장을 기록하다

(구)자온양조장 건축물은 1930년대에 건축된 후 창고, 공장, 주택, 사무실 등이 증축되어 현재는 단층의 4개 건축물A, B, C, D 동로 구성되어 있다. A동은 양조장, B동은 직원숙소 및 사무실, C동은 원료처리실 및 우물, D동은 제성실발효를 끝낸 술을 거르는 곳로 이용되었다. 이 중 건축물의 구조 및 공간 활용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A동과 B동을 대상 건축물로 선정하였다.[13]

(구)자온양조장 건축물
지도 출처: 다음지도

13 (구)자온양조장은 총 4개의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지만 지원사업의 예산 및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대상 건축물은 2개동으로 한정하였다.

©윤준환

외부에서 바라보는 양조장 모습

©윤준환

A동의 양조장 입구

B동의 직원숙소 및 사무실

C동의 원료처리실 입구

D동의 제성실 입구

술밥을 찌던 기름통

술을 빚을 때 사용하던 우물

양조장의 기능상 양조장 건축물은 기둥이 없는 큰 공간이 필요한데 (구)자온양조장은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긴 장방형 형태의 건축물 내부는 기둥이 없이 시멘트 블록조의 대공간으로 구성되었는데, 양조장으로 운영될 당시에는 여러 양조 기물들이 놓여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건축물 지붕은 현재 슬레이트 지붕으로 덮여 있지만 천장 형태로 보아 기와가 올려져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천장은 사람의 노력과 기술이 많이 요구되는 방식으로 건축되었는데, 작은 스팬의 목재들을 일일이 이어 붙여 만든 긴 스팬의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서까래 사이사이가 흙으로 치받이 되어 있다. 각 서까래는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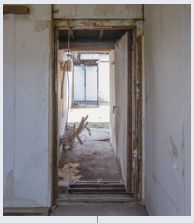
양조장 건축물 내부

양조장 건축물 천장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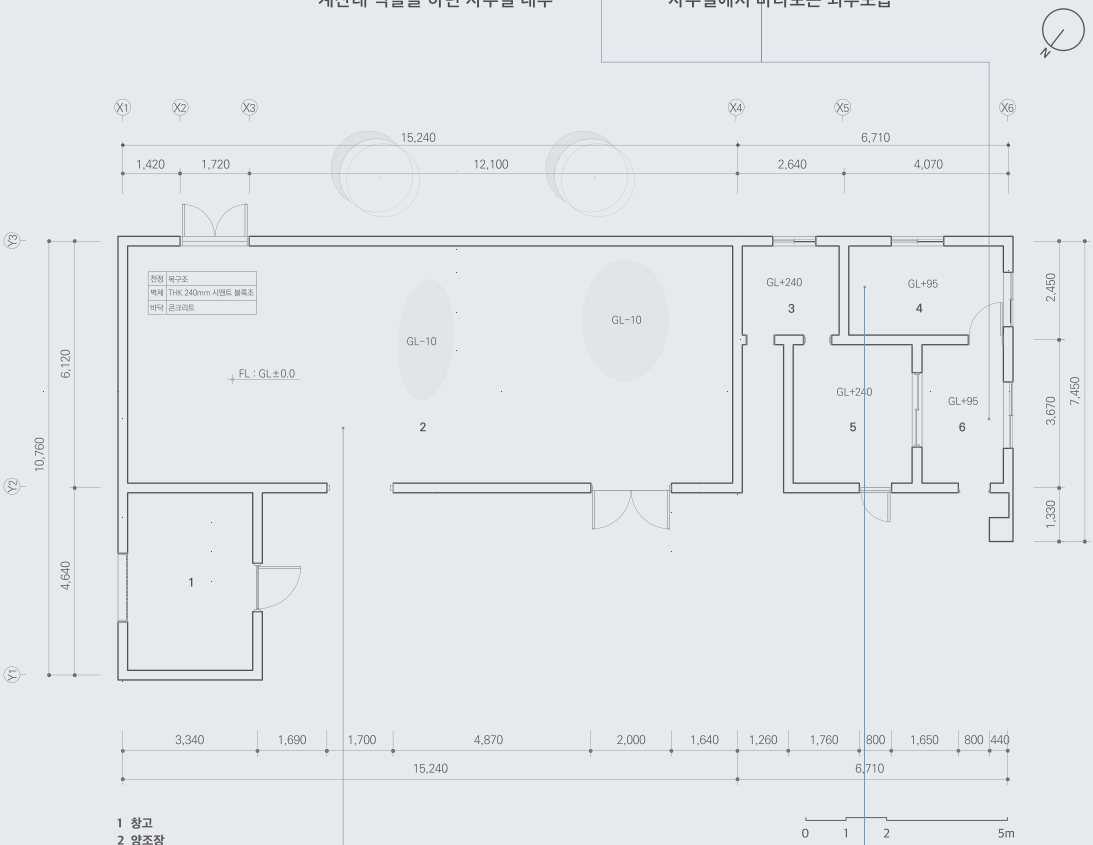
건축물 바깥으로 노출된 서까래와 슬레이트 지붕

평면도

계산대 역할을 하던 사무실 내부



사무실에서 바라보는 외부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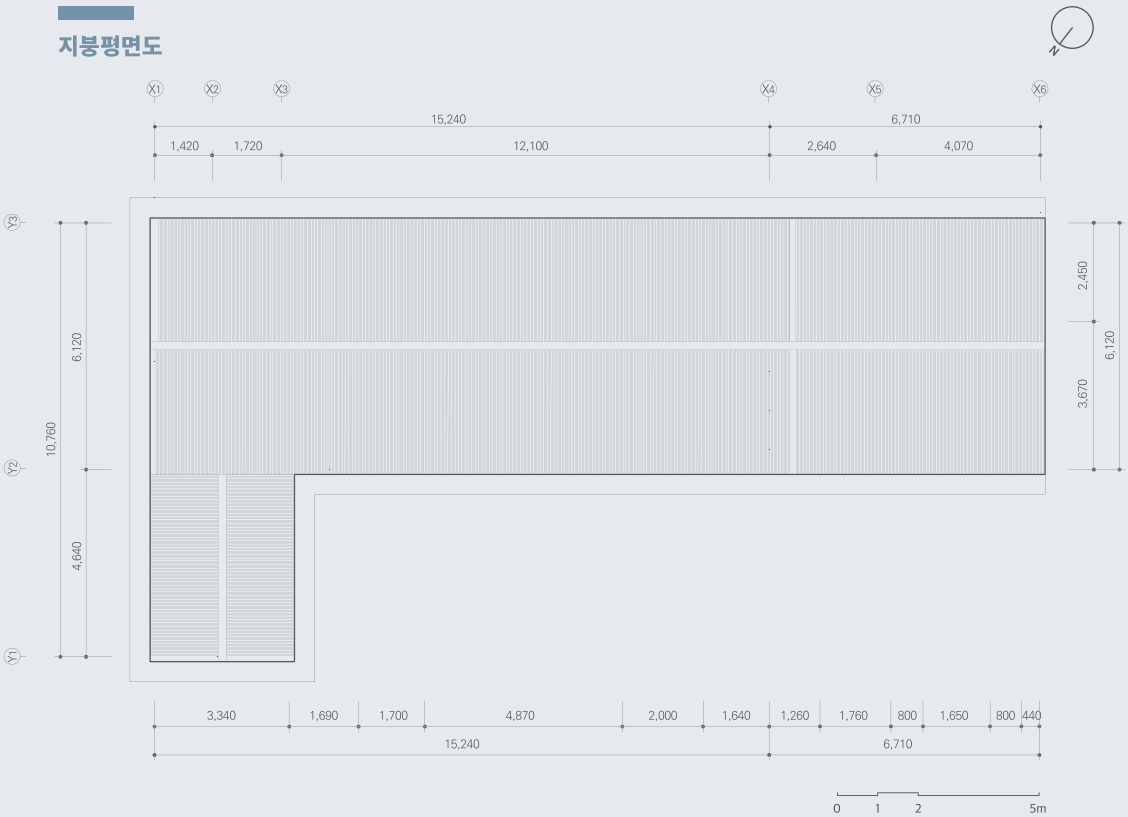


1 창고
2 양조장
3 직원숙소1
4 직원숙소2
5 사무실1
6 사무실2(계산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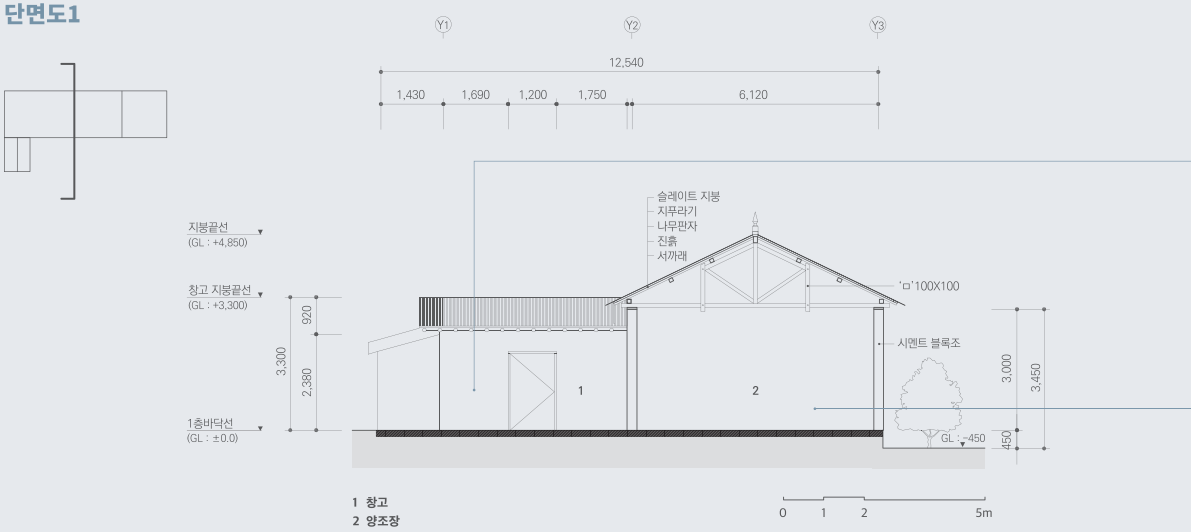
양조장 내부

직원숙소 내부

지붕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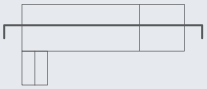


단면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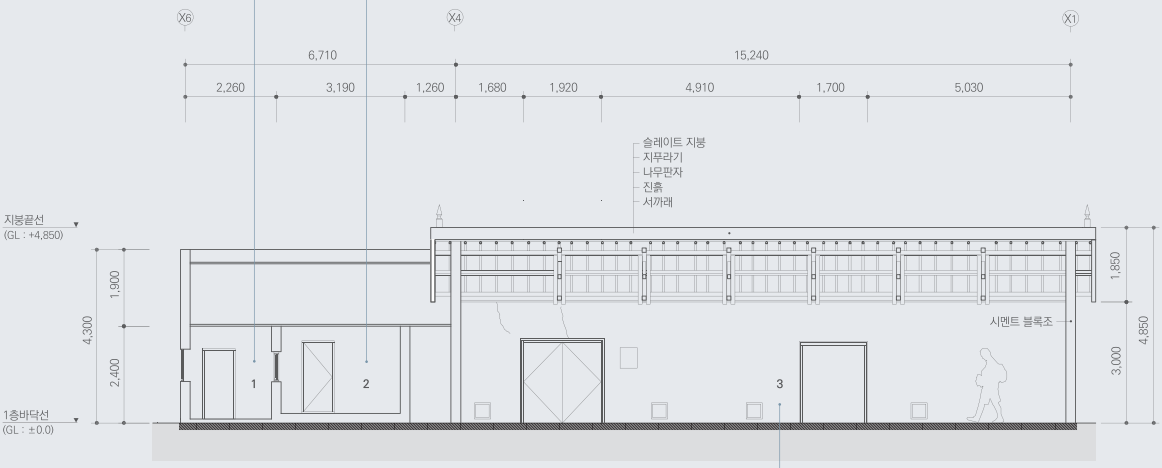
1 창고
2 양조장

단면도2



사무실 내부

직원숙소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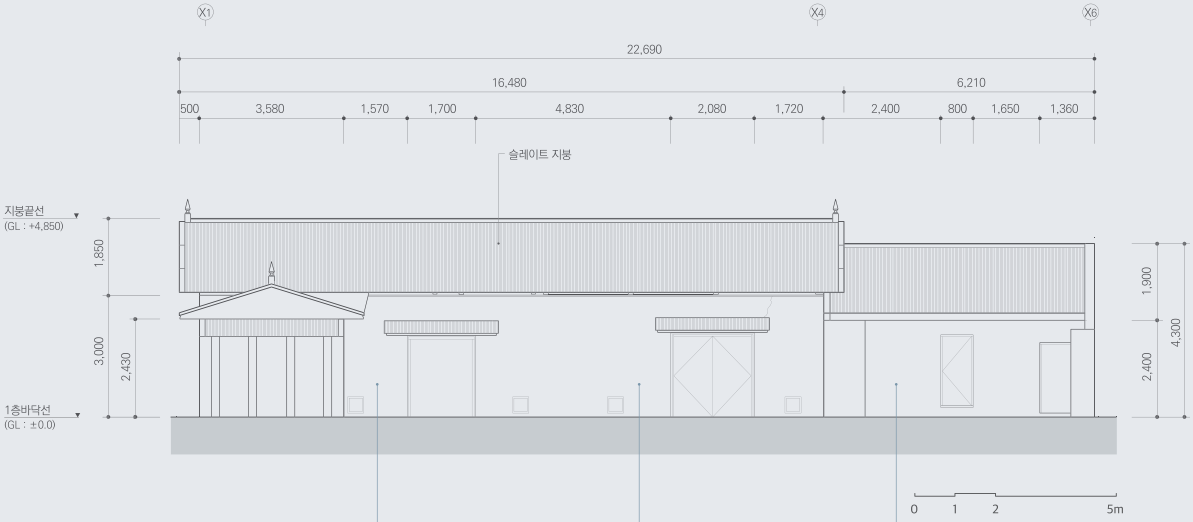
1 사무실
2 직원숙소
3 양조장

양조장 내부

외부에서 바라보는 창고모습

대로로 통하는 양조장 출입구

정면도



외부와 연결되는 양조장 출입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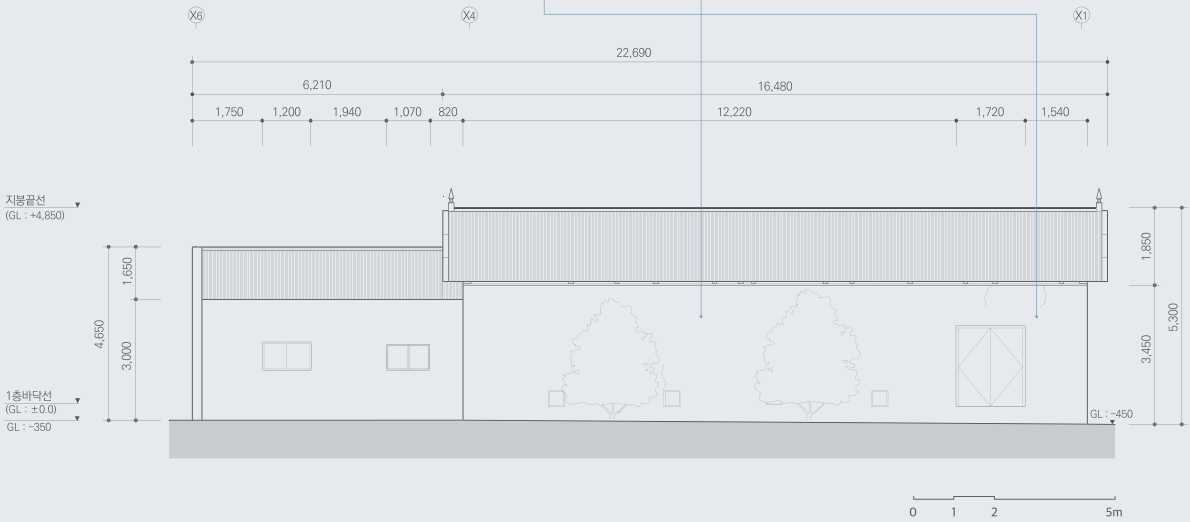
직원숙소와 사무실 출입문

창고와 양조장 외부 모습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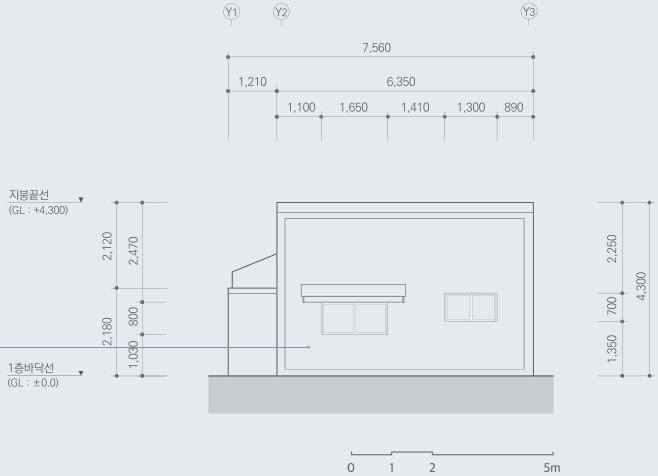
양조장 건물 배면

대로에서 바라보는 양조장 건물



우측면도

계산대로 쓰였던 창문



(구)자온양조장, 다시 시작하다

(구)자온양조장이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후 8월부터 11월까지 (구)자온양조장의 '무엇'을 보전하고 활용할 것인지, '어떤' 공간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건축문화자산센터는 ㈜세간의 박경아 대표와 설계자인 로그램스튜디오의 이현덕 대표와 함께 고민하였다.

건축자산적 가치 발굴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및 답사

콘텐츠 기획 및 디자인 논의 회의

(구)자온양조장의 문을 다시 열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했던 것은 지역이 기억하고 있는 (구)자온양조장의 모습과 역사였다.

(구)자온양조장은 항상 사람들이 드나들고 모이던 장소로, 술을 배달하고 술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마주치고 이야기하던 공간이었다. 어린시절부터 이안당의 일을 도와주셨던 할머니는 (구)자온양조장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다.

"장사하는 곳으로 배달가거나 동네 사람들한테 술을 조금씩 팔고 그랬지. 주전자 갖고 술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어. 항시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어."

비록 현재는 아무도 찾지 않는 공간이지만 (구)자온양조장은 마을 사람들에게 항상 사람들이 북적거리며 이야기가 넘쳐나는 장소로 기억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람들의 기억과 양조장 본래의 장소성을 살리고 다시 사람들이 찾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기존 양조장의 기능과 이름을 살려 PUB[14]으로서 (구)자온양조장을 보전·활용하고자 하였다. 다시 PUB으로 문을 연 자온양조장은 동네 어르신들에게는 옛 기억을 살리고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공간이, 새로운 사람들에게는 (구)자온양조장의 스토리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14 PUB은 Public House에서 비롯된 이름으로 단순히 술을 파는 곳이 아닌 주민들이 모여 교류하는 장소로서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출처:https://www.vocabulary.com/dictionary/pub)

전통주류문화를 경험하는 가변형 복합문화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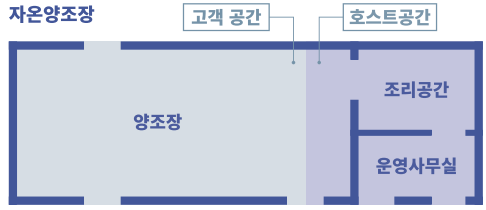
규암리에는 20~30대가 저녁에 방문할 만한 장소나 지역 어르신들이 옛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장소, 그리고 대규모 인원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따라서 다시 문을 여는 자온양조장은 다양한 연령대와 규모의 사람들이 예전 (구)자온양조장처럼 직접 빚은 전통주를 매개로 전통주류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가변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였다.

기존에 양조장으로 쓰이던 공간은 방문객들이 머무는 메인홀로, 직원숙소와 사무실로 이용되던 공간은 주방 및 운영사무실로, 창고로 이용되던 공간은 창고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구)자온양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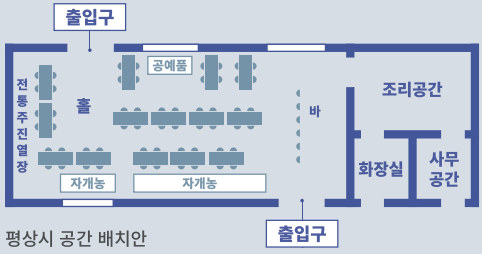
예전의 공간구조

자온양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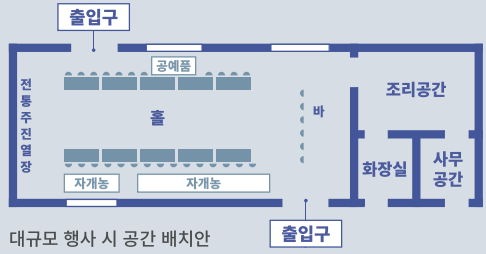


기능적 공간분리

계획안



평상시 공간 배치안



대규모 행사 시 공간 배치안

공간의 이야기와 전통을 담다

자온양조장은 양조장 건축물의 구조와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되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으로 개보수하도록 계획하였다. 그리고 전통가구와 소품을 활용하여, (구)자온양조장의 스토리와 우리나라 전통공예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기본적인 디자인 방향을 설정하였다.

자온양조장의 핵심 콘텐츠는 전통주다. 전통주는 (구)자온양조장의 정체성을 유지시켜 주고, 사람들은 전통주를 매개로 (구)자온양조장의 이야기와 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통주를 어떻게 진열하고 체험할 수 있는지가 전체적인 디자인 계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었다.

이에 부여의 전통주를 비롯한 전국의 다양한 전통주들을 모아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벽 한 면 전체를 전통주 진열장으로 계획하였다.

공간 디자인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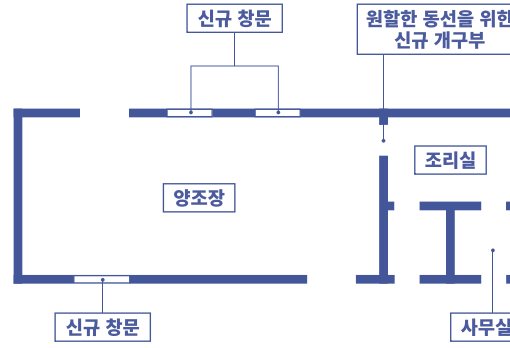
전통주 전시공간 위치

벽면 장식 사례(연남방앗간)

예전에 술을 빚던 양조장으로 사용될 때는 출입구 외 개구부는 크게 필요하지 않았다. 기존 양조장 공간에는 3개의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창문 등의 개구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PUB으로서의 양조장은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건축물 내·외부의 공간과 주변 지역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건축물 외벽에 큰 창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부의 사람들은 창을 통해 규암마을의 자연과 사람을 느끼고, 건축물 외부의 사람들은 창을 통해 자온양조장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양조장의 출입 동선을 고려하여 대로변에 맞닿은 벽면의 출입구를 주 출입구로 계획하였다. 양조장 안쪽에 있는 두 개의 출입구 중 하나는 창문으로 변경하여 건축물 내·외부 간 소통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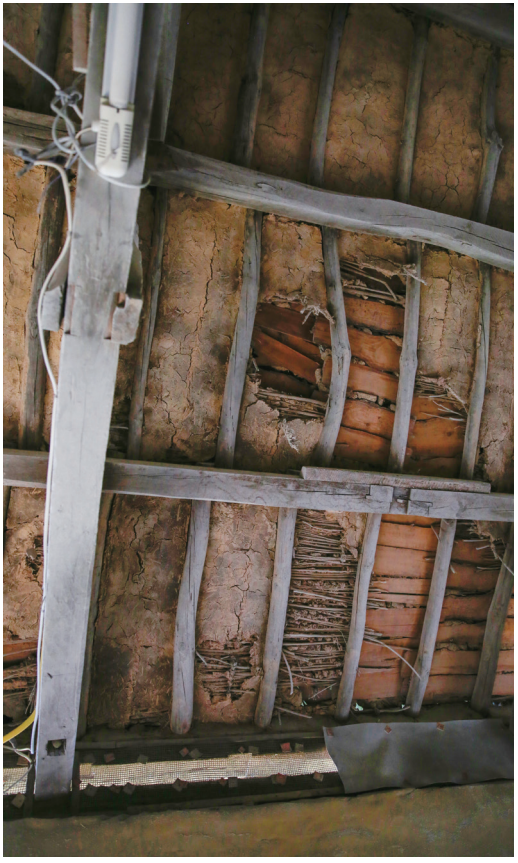
새로 설치되는 창문의 위치

자온양조장의 내부는 전통소품 및 가구들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자온양조장 주인의 여동생 내외분이 사용했던 자개농과 ㈜세간 박경아 대표가 보관하고 있는 전통 소품 및 가구를 활용하여 장식, 수납공간, 테이블 및 의자 등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자온양조장의 지붕은 서까래 사이사이 치받이 되어 있던 흙이 소실되어 서까래 안쪽까지 드러나 있는 부분이 많고 전체적으로 손상되어 전반적인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지붕에 가해지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천장조명은 트러스 구조를 활용하여 라인조명을 설치하는 것을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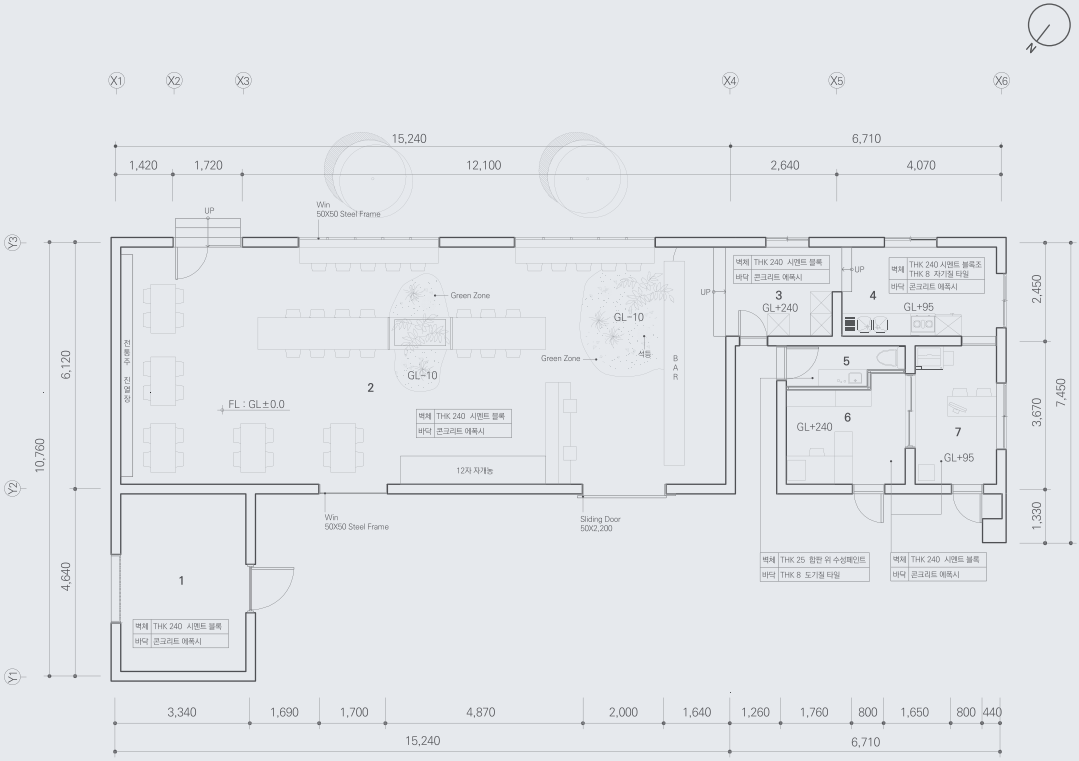
㈜세간이 보관 중인 자개농과 가구들

천장조명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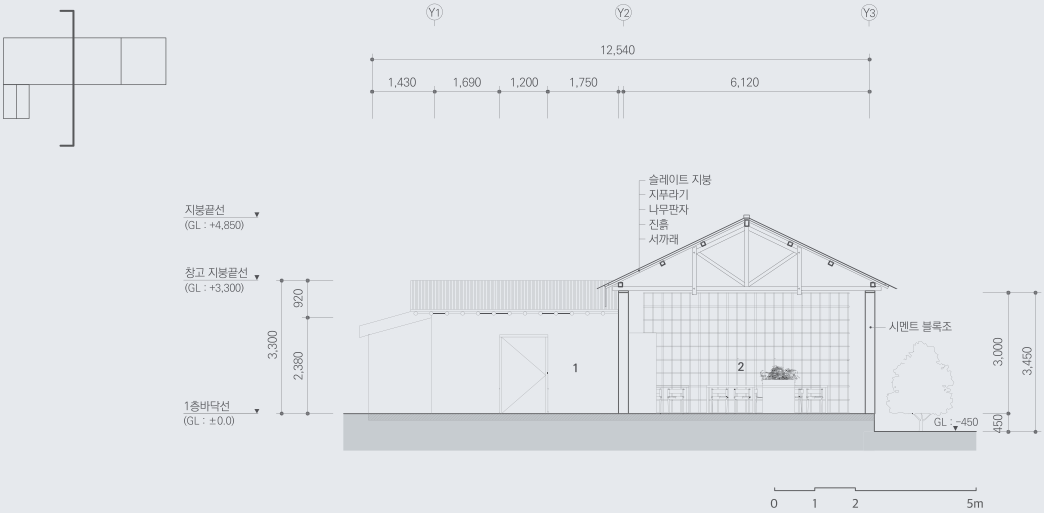
보수가 필요한 지붕

계획안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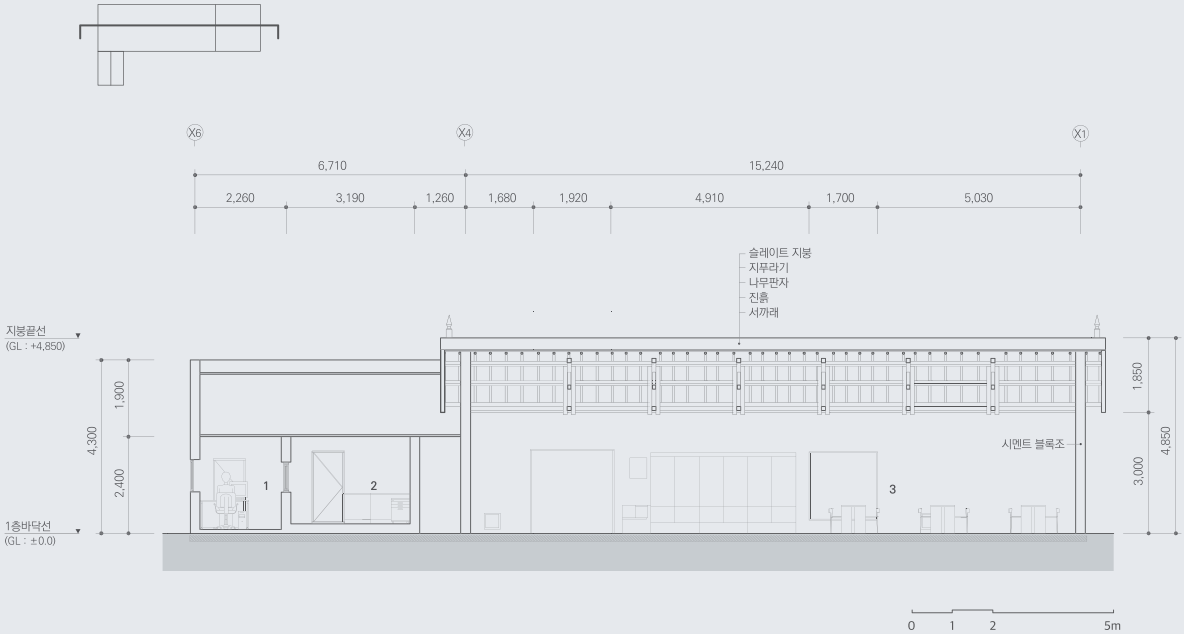


1 창고
2 매장
3 주류보관실
4 주방
5 화장실
6 사무실1
7 사무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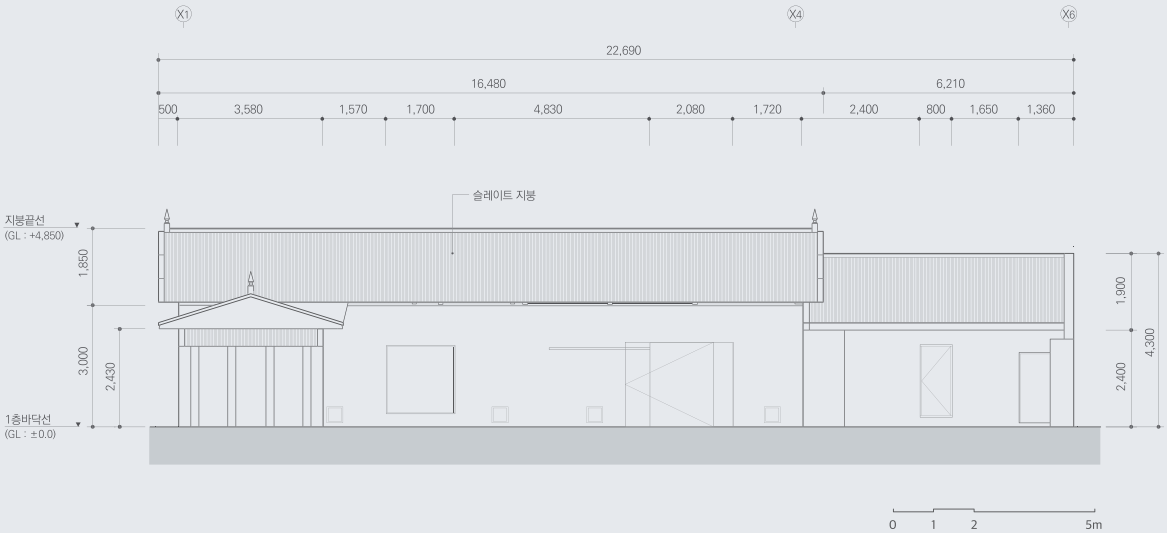
계획안 단면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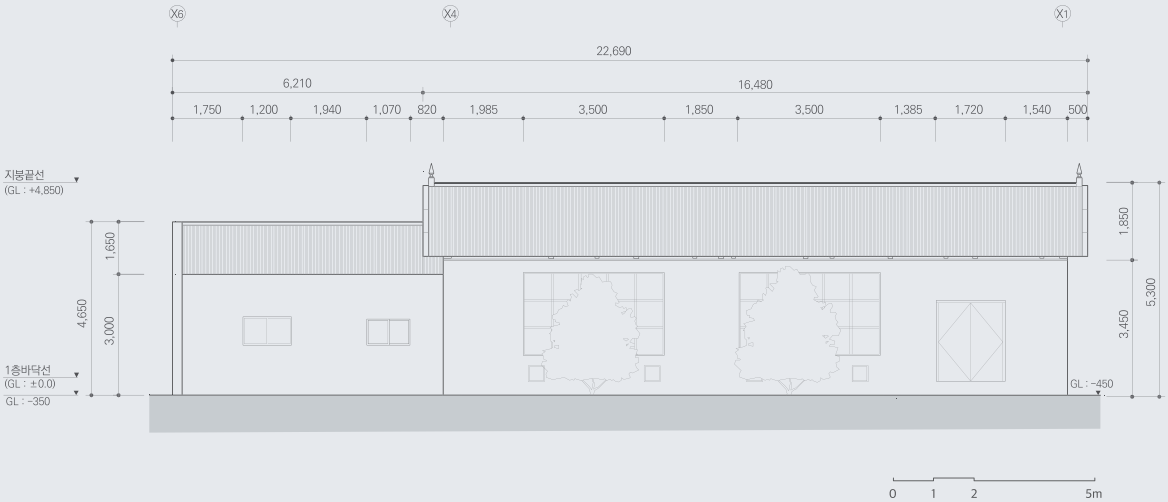
계획안 단면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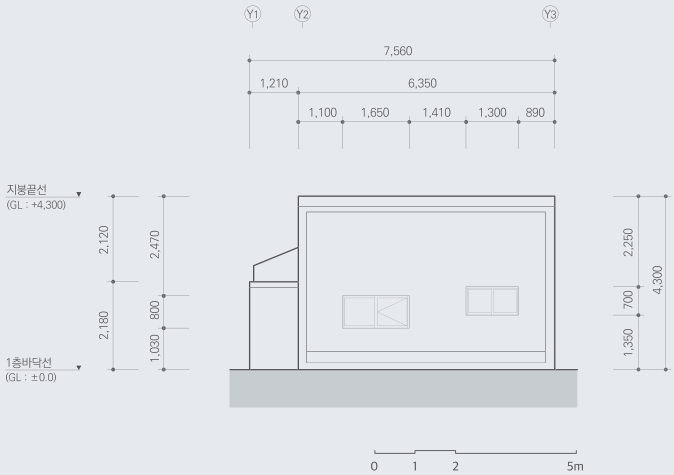
계획안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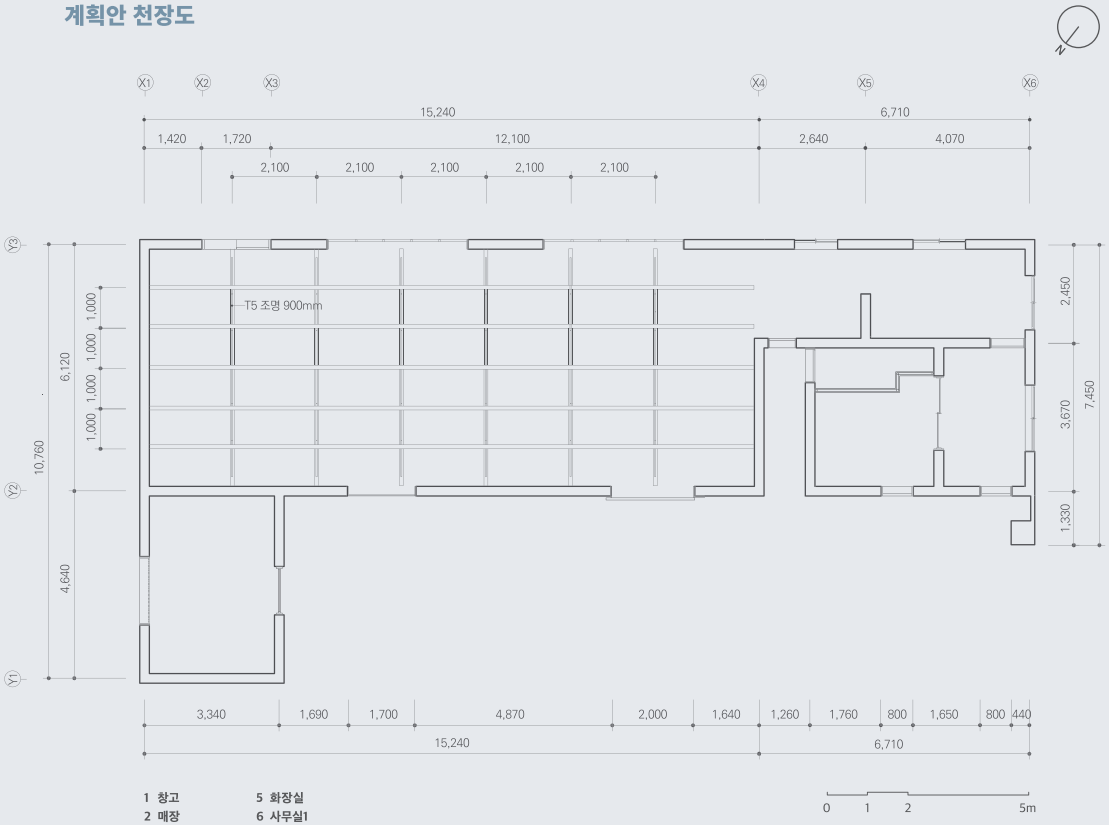
계획안 배면도



계획안 우측면도



계획안 천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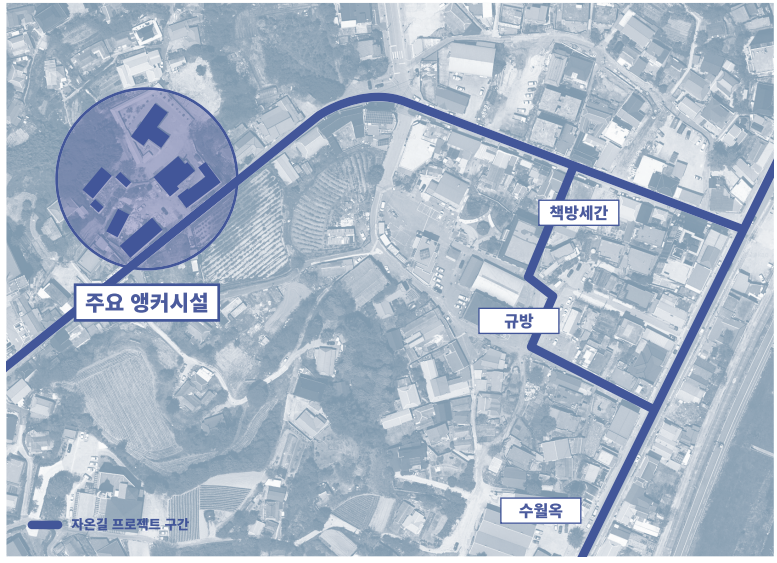


1 창고
2 매장
3 주류보관실
4 주방
5 화장실
6 사무실1
7 사무실2

6 지역문화공간으로 변화하다

지역문화공간으로 확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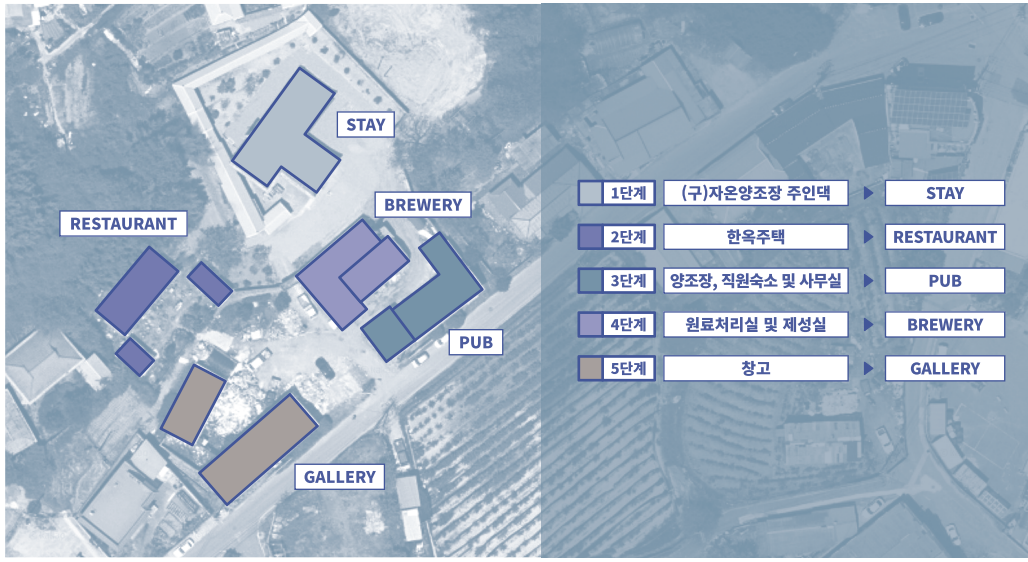
PUB으로 활용 계획인 (구)자온양조장 주변에는 양조장 부속 건축물 외 이안당, 창고 등 ㈜세간 소유의 건축물들이 위치하고 있다. 이 건축물들은 앞으로 (구)자온양조장과 더불어 자온길 프로젝트의 문화 앵커시설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 총 5단계에 거쳐 조성될 계획이다.



자온길 프로젝트에서의 위치 및 기능
지도 출처: 다음지도

우선 1단계로 (구)자온양조장 주인댁이었던 이안당은 이미 한옥숙박시설로 운영되어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음 단계는 이안당 아래쪽에 위치한 한옥 주택이 '매화에 물주거라' 라는 이름의 로컬푸드 레스토랑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3단계는 본 지원사업 대상인 (구)자온양조장 중 양조장과 직원숙소 및 사무실 공간이다. (구)자온양조장은 PUB으로서 전통주를 매개로 사람들이 모이는 가변형 문화공간으로 이용될 것이다. 4단계는 (구)자온양조장 부속 건축물인 원료처리실 및 제성실로 직접 전통주를 빚기 위한 양조시설로 이용될 것이다. 마지막 5단계는 현재 방치되어 있는 두 동의 창고들을 상설 및 정기 전시를 열 수 있는 갤러리로 이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조성되는 공간들은 규암마을과 주민들의 역사를 담고 있으면서 동시에 현재와 미래의 규암마을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 주요 문화공간으로 역할을 확장하게 될 것이다.



(구)자온양조장 일대 건축물의 공간활용 계획(안)
지도 출처: 다음지도

건축자산 기획이야기

발행일 2019년 12월 31일
발행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펴낸이 박소현
엮은이 건축문화자산센터
지은이 이민경, 이종민, 김민지, 류수연

출판등록 제2015-41호 (등록일 '08. 2. 18.)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홈페이지 www.auri.re.kr

디자인·제작 (주)크리에이티브 다다 / www.credada.com

ISBN
979-11-5659-267-9

비매품

© 2019,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문화자산센터
* 이 책에 수록된 모든 사진과 도면은 저작권자와의 사전협의를 거쳤습니다.
* 이 책의 저작권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있습니다. 허락 없이는 어떠한 형태로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책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auri.re.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건축문화자산센터

Architectural Culture Asset Center

비매품

93540

9 791156 592679

ISBN 979-11-5659-267-9